

외부충격과 지역경제: 부산 제조업회사, 1908-1936

박 영 구*

요약

0세기 前半期 나타난 부산지역의 외부충격과 이에 대한 지역 제조업회사의 변화와 반응은 지역사회에서도 세계적인 일반성과 함께 지역 특수성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따라서 지역별 연구가 좀더 심화되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고의 검토는 외부충격이 미치는 최종적인 영향과 결과는 지역사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됨을 보여준다. 나아가 외부적 충격의 정도와 상관없이 비합리적 선택을 한 주체는 배제되지만 동시에 외부충격은 언제나 새로운 발전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당연히 오늘날 외부변수의 영향력이 커지는 지역경제의 전략에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주제분류 : B030106

핵심 주제어 : 외부충격, 지역경제, 부산 제조업회사, 20세기 전반, 공황

I. 자료와 시기, 방법

거시경제에서 외부충격이 주는 영향은 항상 외생변수로 고려된다. 그러나 오늘날과 달리 개방도가 낮다고 인식되어 온 일제하 연구에서 이러한 점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고려되고 있었다. 또한 외부충격의 영향대상으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21-B00029). 본 논문의 3회 발표시 장지용교수님 등 부산경제사연구회, 지역사회학회의 여러 선생님들의 다수 지적이 있었고 특히 인제대 박섭교수님은 직접 본 논문을 경기순환에 맞추어 수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 본 논문을 개선시켜 주었다. 두 심사자의 개선을 위한 지적에 감사드린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parkyg@pufs.ac.kr

로 거시경제 혹은 전국적 차원의 산업, 기업 등 미시적 측면은 고려되고 있지만 역사연구에서 지역 산업과 기업에 미친 영향은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았다. 정책적 독립성이 약했고 무엇보다 지역경제나 지역 경제주체의 규모가 작아 따로 고려해야 할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영향이 전쟁이나 대공황과 같은 세계적 규모를 가질 경우 지역의 특정산업기업에 미친 특수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이해되고 무시되고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지역문제를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하지만 일부 거론되는 역사적 검증에서도 20세기 초 세계적 차원에서 검증된 현상이 지역경제의 산업과 기업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는 미약했다. 특히 이제까지 일제하 부산지역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대일본 항구라는 특징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조업보다 상업, 서비스업에서, 또 제조업이라고 해도 항구로서 수출입을 위한 가공부문이 더 번성하였던 것으로만 인식되어져(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원, 1989;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0; 장선화, 2000)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시기적으로나 자료, 내용에서 한정적인 수준이었다. 저자는 식민지하 부산지역의 제조업은 기존의 인식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부분과 시장을 갖고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높은 대일 의존성으로 연속성과 장기성에서 한계가 있었고 이것이 해방 이후 악영향을 끼쳤음을 제기한 바 있지만(박영구, 2005a), 여전히 보다 구체적인 시장주체로서의 제조업 기업에 대한 추적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기존에 충분히 논의된 일제하 전국 공업과 공업정책에 대한 논의(김낙년, 2003; 김인호, 1998; 정태현, 1996; 허수열, 2005)와 부산지역 공업, 공장 전체에 대한 시책, 일본의 의도, 변화과정(박영구, 2005a)은 생략하고 지역제조업회사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외부충격을 봄으로써 오늘날 지역경제 문제의 역사성, 내재적 측면과 그 역사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일제하 지역경제주체로서의 부산의 제조업기업에서 세계경제사에서 확인된 일반성과 특수성을 찾아봄으로써 현 지역문제에 대한 대안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단 이 시기 2차례의 전쟁이 모두 큰 외부충격이었지만 (1) 1937년 이후는 외부에서 온 전쟁이라는 변수가 아닌 일본이 직접 태평양전쟁의 당사자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시장기구를 강제로 정지시키고 있었으므로,¹⁾ 나아가 (2) 학회지 지면제한상, 그리고 선행연구논문(박영구, 2008)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1908-1936년까지를 고려 대상으로 한다. 이 시기에 있었던 외부충격은 첫째, 식민지화와 일본기업진입, 둘째, 1차세계대전과 종전의 구조조정,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대공황이 있었다.

장기계열이면서 동시에 현대가 아닌 근대 일제하 제조업기업을 보기 위해서 우선 정의해야 할 문제는 부산기업이라는 지역기업의 기준과 제조업이라는 산업기준이다.

우선 부산제조업기업은 주소를 부산으로 한 기업으로 하되 부산에 있는 지점, 대리점, 판매점은 성격상 부산의 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출장소, 支所도 역시 같은 이유로 부산의 기업으로 보기 어려워 제외한다.

기업업종의 분류 문제는 역사적 연구에서 보다 복잡하다. 오늘날과 달리 일제하 근대시기 회사는 여러 산업에 걸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예컨대 건설회사라고 하여도 건설자재 및 장비 제조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여전히 기능상 분화가 미흡한 채로 결합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산업은 그 회사의 주업종이 무엇인가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당연히 주업종이 달라지는데 따라 회사분류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컨대 회사의 업종분리가 되어 있는 『朝鮮總督府統計年報』의 경우 「釜山鹽業合名會社」, 「合名會社石川精米所」가 1915년판에서는 제조업회사로 분류되었다가 1916년판, 1917년판에서는 상업회사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주업종 변경에 이유가 있는 것이다.

釜山府가 발행하고 기업추출의 1차 기초자료가 되는 『釜山府勢要覽』, 『釜山商工案内』, 『釜山の産業』 등은 회사명부에서 분류 없이 회사명, 업종, 주소, 설립연월일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일제시대 지역의 회사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로는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慶尙南道統計年報』, 그리고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이 있다. 앞의 두 자료는 정부에서 발행한 공식 1차통계인데 비해 세 번째 자료는 中村資良이 편찬하여 東亞經濟時報社에서 발행

1) 엄밀히 말해 8월 트럭운송 제한실시와 「농작물공출제」 강제시행이라는 물류, 원자재 제한에 이어 12월 「노무조정령」이 공포되고 개별공업으로도 「製鐵業令」, 「資本金調整法」 등에 의한 기업인가신청을 받아야 했던(동아일보, 1940년 3월 16일) 1941년 이후에 정상적인 시장기구가 붕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민간자료이다.

그런데 정부가 발행한 자료와 민간이 발행한 자료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첫째, 분류상의 차이가 있다. 정부가 회사를 분류할 때는 그 회사의 조사를 통해 분류가 이루어졌지만 東亞經濟時報社가 분류한 것은 편찬자가 업종을 보고 분류한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朝鮮總督府統計年報』와 『慶尙南道統計年報』의 분류는 신뢰할 수 있지만 中村資良 편찬 자료는 분류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점은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의 경우 회사명에 '상점', '상회' 등이 들어가면 업종과 생산과정에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그냥 상업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에서 확인된다. 예컨대 『慶尙南道統計年報』에서 제조업회사로 분류가 되어 있는 「永瀨商店(合資)」(부평정 1-20), 「釜山鹽業商會(合資)」(영선정 76), 「藤本商店(合名)」(서정 4-57) 등은 제조를 주영업으로 포함하는 제조업회사임에도 '상점', '상회'라는 회사명 때문에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29년판)에서는 모두 상업회사로 분류되어 있다.

둘째, 정부가 발행한 자료는 조사시점이 대부분 연말로 되어 있어 한 해의 변화를 모두 반영하는 데에 반해,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은 조사시점이 3월, 4월, 6월, 8월, 9월 등 불규칙하게 되어 있어 일관성이 없고 시점상 그 해를 대표하여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부산시, 조선총독부, 경상남도의 업종기록은 간단히 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사한 항목일지라도 계속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년 새로이 조사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의 기록은 변경도가 떨어져 관례적으로 지난 조사를 다시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정부기관의 1차 자료인 부산시, 조선총독부, 경상남도 등이 업종을 구분한 경우는 그 분류에 따르는 것이 우선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구분이 안되는 경우²⁾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의 분류를 일단 참고로 하되 업종, 조사시점을 꼼꼼히 검토하여 재분류

2)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서의 분류는 1915년까지만 얻을 수 있고 『慶尙南道統計年報』는 1920년, 1921년, 1922년, 1923년, 1925년, 1926년, 1930년의 7년 기준값만을 1923년판, 1924년판, 1925년판, 1927(1928)년판, 1929년판, 1932년 발행판에서 얻을 수 있다.

할 필요가 있는데, 비록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에서 상업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도 부산부, 경상남도에서 일관되게 업종에서 제조만을 기록하거나 제조업을 명백히 주업종으로 포함할 경우 제조업기업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업종을 알 수 없고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의 분류는 (1) 우선 수집기관이 아닌 직접 조사, 보고기관이었던 부산부에 의해 작성되고 또 수정이나 원자료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1차 자료인 『釜山府』의 『釜山府勢要覽』, 『釜山商工案内』, 『釜山の産業』에서 회사일람을 업종별로 검토하여 제조업을 포함하면 제조업회사로 분류하되, (2) 『朝鮮總督府統計年報』나 『慶尙南道統計年報』 등 분류가 되어 있는 공적 자료의 동일연도, 가장 가까운 연도, 같은 시기적 성격을 가지는 시기 순으로 맞추어 분류하고 난 후, 최종적으로 (3) 일제하 총괄적인 공업회사 분류 규칙과 해방 후 분류 규칙의 변화에 의해 통일되어져 가는 분류는 이를 적용하여 시계열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 원칙에 따라 분류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신문사, 가스전기회사, 토목회사는 제조업회사에서 제외한다. 신문사는 『慶尙南道道勢要覽』의 1914년판에서 제조업회사로 포함되어 있으나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5년판에서는 제조업회사에서 제외되고 이후 계속 제외된다. 『慶尙南道統計年報』 1923년판부터는 다시 포함되었지만 1932년판부터는 다시 제외된다. 가스전기는 『慶尙南道道勢要覽』(1914)과, 釜山府의 1917년 발간자료로 추정되는 『釜山府勢一斑』,³⁾ 그리고 『慶尙南道統計年報』 등에서 이미 공업회사가 아닌 것으로 별도기록되어 있다. 토목건축은 초기에 「釜山埋築株式會社」가 統監府의 『統監府統計年報』, 1909년판에서는 제조업회사로 분류되고 또 「朝鮮起業株式會社」가 『慶尙南道道勢要覽』(1914)에서는 공업회사로 되고 있으나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5년판에서는 공업회사에서 제외되고, 다시 1916년판, 1917년판에서는 공업회사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 『慶尙南道統計年報』(1923, 1932), 부산부의 『釜山の産業』, 그리고 공장통계 등 전 자료에서 일반적으로 토목 자체는 공업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제 이상의 원칙에 따라 1910-1936년 부산의 제조업회사를 구하고 그 변화와 성격을 살펴보자. 시기구분은 이 연구가 식민지 연구나 정책, 전산

3) '1917년 2월' 기록이 내용에서 발견되고 대부분 중심통계가 1916년 것이다.

업 연구가 아닌 외부충격과 지역 제조업기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므로 제조업회사의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 경기변동과 외부충격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제조업 회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수정하였다. 그래서 일본의 기업들이 부산에 진입해 들어오고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는 1915년까지, 전쟁특수와 호황기가 제조업에 반영되는 1916년 이후, 그리고 대공황의 1930년과 그 회복기간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1920년 이후 1924년 경까지 전후 급속한 수요감소와 함께 구조조정에 따른 불황이 나타났지만 부산의 제조업회사에 미친 영향은 작았던 것으로 나타나 일단 대공황 이전까지를 같이 묶었다. 불변가격으로의 변환시 모든 가격은 해방 후 두 번의 화폐개혁을 반영하여 1/1,000로 환산하였다.

II. 식민지화와 일본회사의 진입, 1908-1915

부산의 최초 제조업회사는 1903년 등록된 불입자본금 17,500원의 「日韓精米合資會社」이다(『釜山港勢一斑』, 相澤仁助, 1905). 「日韓精米合資會社」는 1904년 「日朝精米合資會社」로 사명을 변경하고 불입자본금을 50,000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相澤仁助, 『韓國二大港實勢』, 日韓昌文社, 1905). 「釜山電燈株式會社」가 이미 1901년에 창립되었지만 여전히 제조가 없는 상업회사였다(統監府, 『統監府統計年報』, 1909.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0). 「釜山水產株式會社」(불입자본금 60,000원) 역시 영업목적이 '魚類雜賣'와 제조로 되어 있으나 『慶南道勢要覽』(1914)에서 보듯이 주업종이 수산업이었다. 1904년 「韓國臺鹽販賣合資會社」가 창립되었으나 역시 판매를 주로 하다가 1911년부터야 再製鹽을 본격화하였다. 이 회사는 대만과 중국의 천일염을 거래하였다.

「日朝精米合資會社」 이후 다른 부산제조업회사가 조사에서 등장하는 것은 1907년 「釜山埋築株式會社支所」에서 승격, 분리된 「釜山埋築株式會社」인데(統監官房文書課, 『第一次統監府統計年報』, 1907; 統監府, 『統監府統計年報』, 1909) 이는 제조업을 겸한 토목건축회사이다. 「釜山煙草株式會社」 역시 1907년 4월 창립되었지만 1907-1908년 연초를 중개판매만 하다가 1909년부터 연초제조를 시작해 제조업회사로 등록되었다. 또 「日清

製藥株式會社」의 경우 1907년 9월 창립으로 되어 있는데 1913년에 공식 등록되었다. 결국 분류통일상, 주업종상, 등록기록상으로 보아 1904-1907년 창립된 부산의 제조업회사는 없었다.

1908년부터 부산의 회사는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중 1908-1915년 부산의 제조업회사를 추출해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908년에는 회사등록체계가 보다 정교해지면서 제조업회사는 「釜山製粉株式會社」, 「山西酒造株式會社」, 그리고 제조를 시작한 「釜山電燈株式會社」 3개로 늘어나고 이들 3개 제조업회사는 사명에서 보듯이 모두 주식회사이다. 「釜山電燈株式會社」는 大池忠助가 조직하여 1901년 9월에 부산에서 창립신고한 매우 선구적인 독립회사로⁴⁾ 불입자본금이 100,000원에 이르는 대기업이었는데, 전력이 19세기 말 이후 자본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점에서 부산에 전력대기업이 들어선 것은 의미가 매우 큰 것이었다. 이렇게 빨리 대기업 전력회사가 부산에 독자적으로 성립되었던 것은 당시 부산이 전국에서도 중요한 경제적 위치로 인해 전력수요가 높았기 때문이다. 「釜山電燈株式會社」는 1908년부터 전력수요확대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사업다각화를 위해 전기관련제품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었다. 나머지 2개 회사는 불입자본금이 30,000원, 45,000원의 영세한 회사였다.

【표 1】 1908-1915년 공업회사 일람

	공업회사	회사형태	설립일자	불입자본금	순익금	이익배당률
1908	釜山電燈	주식회사	1901.9	100,000		1.5
	釜山製粉	주식회사	1908.3	30,000		-
	山西酒造	주식회사	1908.12	45,000		없음
	합계	3		175,000		
1909	釜山煙草	주식회사	1907.4	34,575		-
	釜山電燈	주식회사	1901.9	100,000		1.6
	釜山製粉	주식회사	1908.3	30,000		-
	山西酒造	주식회사	1908.12	45,000		1.0
	합계	4		209,575		
1910	釜山煙草	주식회사	1907.4	35,000		1.0
	小西酒造	주식회사	1908.12	45,000		1.2-1.2
	釜山飲料社	합자회사		8,620		-
	합계	3		88,620		1-1.5

4) 『朝鮮功勞者銘鑑』(조선공로자명감간행회, 경성: 民衆時論社, 1935, p.637)에 의하면 大池忠助이 1899년 사장에 취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공식설립은 1901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 9 1 1	韓國鹽販賣合資	합자회사	1904.1	60,000	4,086	-
	合資釜山飲料	합자회사	1910	9,320	1,550	1.55
	丸金酒造	주식회사	1908.12	45,000	7,019	1.00
	釜山製粉	주식회사	1908.3	30,000	162	-
	釜山煙草株式會社	주식회사	1907	35,000	1,630	-
	針酒造株式會社	주식회사	1911.1	10,000	-	-
	釜山鹽業合名	합명회사	1911.1	30,000	-	-
합계	7		219,320	14,447		
1 9 1 2	合資釜山飲料	합자회사	1910	10,000	850	1.70
	丸金酒造	주식회사	1908.12	42,000	1,595	-
	釜山煙草株式會社	주식회사	1907	35,000	1,433	0.82
	辻酒造株式會社	주식회사	1911.1	25,000	-	-
	釜山製粉	주식회사	1908.3	30,000	-583	-
	韓國鹽販賣合資	합자회사	1904.1	60,000	-1,946	-
	釜山鹽業合名	합명회사	1911.1	30,000	-	-
합계	7		232,000	1,349		
1 9 1 3	辻酒造株式會社	주식회사	1911.1	25,000	1,740	-
	釜山煙草株式會社	주식회사	1907	35,000	-	-
	合資會社釜山飲料社	합자회사	1910	10,000	2,400	1.00
	丸金酒造	주식회사	1908.12	42,000	-95	-
	日清製藥	주식회사	1907.9	15,000	10	-
	釜山鹽業合名	합명회사	1911.1	30,000	-2,335	-
	(合名)石川精米所	합명회사	1913.1	30,000	6,969	1.0
大山合名會社	합명회사	1913.1	10,000	-	-	
합계	8		197,000	8,689		
1 9 1 4	辻酒造株式會社	주식회사	1911.1	25,000	7,426	0.8
	丸金酒造	주식회사	1908.1	42,000	2,765	-
	釜山煙草株式會社	주식회사	1907	35,000	-	-
	日清製藥	주식회사	1907.9	15,000	190	-
	合資朝鮮飲料社	합자회사	1910	10,000	1,130	0.35-0.78
	大山合名會社	합명회사	1913.1	10,000	6,556	1.10-1.10
합계	6		137,000	18,067		
1 9 1 5	釜山煙草株式會社	주식회사	1907	35,000	-	-
	日清製藥	주식회사	1907.9	15,000	819	0.5-0.3
	丸金酒造	주식회사	1908.1	42,000	1,183	0.50
	合資會社釜山飲料社	합자회사	1910	10,000	500	0.50
	辻酒造株式會社	주식회사	1911.1	25,000	3,243	0.7
	大山合名會社	합명회사	1913.1	10,000	184	2.0
합계	6		334,320	5,929		

자료: 統監府, 『第三次統監府統計年報』, 1910.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1917.

주: 1. 지점, 출장소 제외함. 이하 동일.

2. 밀양, 김해, 동래, 양산, 연양군 등은 제외함. 이하 동일.

3. 1914-1915년의 경우 원자료에는 공업회사로 주식회사 「朝鮮起業株式會社」(1912년 10월 창립, 불입자본금 750,000원)가 들어가 있으나 제외함. 이하 동일.

4. 1909년 「산서주조」의 창립연도가 1908년 11월로 되어 있으나 1908년 12월이며 「부산제분주식회사」는 1911년 창립일이 1907년 3월로 기록되어 있으나 1908년 3월임.

1910년에 나타나는 「小西酒造株式會社」와 1911년 기록에 보이는 「丸金酒造株式會社」는 회사내용 대조결과 「山西酒造株式會社」가 회사명을 바꾼 것임을 알 수 있다. 1909년 들어와 부산 제조업회사는 「釜山煙草株式會社」가 다시 편입되어 4개가 되었으며 이들 제조업회사의 총 불입자본금 합은 209,575원이었다(朝鮮總督府, 『第四回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

1910년 제조업회사는 「한국가스전기주식회사」가 5월에 「韓國가스전기」가 동경에 만들어지면서 11월부터 「한국가스전기부산지점」으로 인수합병되어 부산지점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본사를 부산에 둔 제조업회사는 「釜山煙草」, 「釜山飲料社」, 「小西酒造」의 3개로 다시 바뀌었다가(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2) 강제합병 후 첫 해인 1911년 7개로 대폭 늘어났다. 「韓國臺鹽販賣合資會社」는 1904년에 창립되었으나⁵⁾ 판매를 주영업으로 하는 상업회사로 있다가 1911년부터 再製鹽을 포함하는 제조업회사로 바뀌었다. 이들 제조업회사는 모두 일본인회사였다. 「釜山製粉株式會社」는 창립일이 1908년 3월인데 공장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1910년에는 조사대상 회사명부에서조차 빠졌다가 1911년 다시 등록되는데 이때 창립일이 1907년 3월로 기록되었다.

공장보다 더 정형화된 형태를 갖춘 회사들의 업종은 식민지 초기 공업보다 일본에서의 판매를 위한 상업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공업회사는 1911년 늘어난 후 다시 정제되어 있는 데 비해, 상업회사는 1911년 8개, 1912년 9개, 1913년 14개로 늘어났고, 1913년 11월과 1914년 7월에는 한일합작의 상업회사 「釜山共同倉庫株式會社」와 「慶南水産株式會社」도 불입자본금 70,000원, 25,000원으로 부산에서 만들어졌다(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3-1917).

1912년 7개 제조업회사 「合資會社釜山飲料社」, 「丸金酒造株式會社」, 「釜山煙草株式會社」, 「辻酒造株式會社」, 「釜山製粉株式會社」, 「韓國臺鹽販賣合資會社」, 「釜山鹽業合名會社」는 전부 일본인회사였는데, 「韓國臺鹽販賣合資會社」의 불입자본금이 60,000원이었고 나머지 회사들의 불입자본금은 42,000원, 30,000원, 그리고 그 이하의 소규모였다.

이들 7개 회사 중 회사의 순이익금을 계산해 낼 수 있는 자료를 남긴 회사

5) 1876년에 첫 일본인 제염공장인 「韓國臺鹽販賣」가 부산에 설립되어 이후 대만과 중국의 천일염을 거래하고 일부 再製하다가 1904년 8월 합자회사로 창업하였다.

는 5개사이다. 이를 통해 1910년대 초 당시 부산제조업회사의 경영상태를 보면 「釜山製粉株式會社」, 「韓國臺鹽販賣合資會社」는 각각 결손금이 583원, 1,946원으로 기업경영이 어렵다가 결국 다음 해 1913년 「釜山製粉株式會社」는 폐업하고, 「韓國臺鹽販賣合資會社」는 「臺鹽販賣合資會社」로 사명을 바꾼 뒤 제조보다 증개판매업으로 주력을 옮겼지만 여전히 2,812원의 손실을 보고 1914년 폐업했다(『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4-1916). 이 두 기업은 1908년과 1904년 비교적 일찍 전형적인 내수품목인 식품사업으로 부산에 진출했고, 특히 「韓國臺鹽販賣合資會社」는 자본금 6만원에 1911년 4,086원의 이익을 내면서 「釜山鹽業合名會社」의 진입도 유인하는 선도역할을 하였지만 이후 시장상황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완전 정착하지 못한 채 몰락했다. 1911년 진입한 「釜山鹽業合名會社」 역시 1911년, 1912년 이익을 내지 못하고 1913년에는 2,335원의 손실을 기록한 후, 1914년 매입,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회사로 주업종 전환을 하였으나 1914년에도 이익을 보고하지 못하고 있고 1915년에도 전반기 14원 이익 보고 외에 하반기 이익보고를 하지 못하는(『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3-1917) 등 고전을 겪었다. 반면 정미, 음료, 酒造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계속 이익을 내고 있었다. 이러한 업종별 차이는 업종별 시장요인이라는 미시적 요인이 다르게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수요의 소득, 가격탄력성이 매우 안정적인 염업과 제분업에서 나타난 이러한 식품제조기업의 몰락은, 부산에서의 내수창출 및 수요전환에 실패하면서 일본인들의 신뢰도 받지 못했던 신식품기업의 상황을 보여준다. 한편 음료, 주류와 함께 식품이라고 하지만 기호식품업으로 1910년 제조를 시작한 「釜山煙草株式會社」는 1911년, 1912년 불입자본금의 4.7%, 4.1%의 고수익을 내고 있어 정착에 성공하고 있었다. 식민지 초기에 필수품이 아닌 기호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은 주목된다.

1913년에는 「釜山製粉株式會社」와 「韓國臺鹽販賣合資」가 폐업 혹은 제조영업을 중단하고 대신 「日淸製藥株式會社」, 「(合名)石川精米所」, 「大山合名會社」가 새로 제조회사로 등록하였다. 「(合名)石川精米所」, 「大山合名會社」는 1913년에 창립된 회사이지만 「日淸製藥株式會社」는 1907년에 창립된 회사였다가 이 해에 제조업회사로 등록한 것이다. 그 결과 1913년의 제조업 회사는 1912년에 비해 1개 늘어나고 있지만 제조업 회사에서 소멸

된 회사에 비해 새로 등록된 회사의 불입자본금이 적어 오히려 제조업회사의 총불입자본금합은 줄어들었다. 회사규모를 보면 최고불입자본금이 「丸金酒造株式會社」의 42,000원에 불과하였고 다음이 「釜山煙草株式會社」의 35,000원이었으며 나머지 제조업회사들은 모두 30,000원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체였다. 제조업회사의 순익을 보면 6개 회사 중 「丸金酒造株式會社」, 「釜山鹽業合名」의 2개 사가 여전히 결손 95원, 결손 2,335원으로 영업결손을 겪고 있었다.

1914년 부산의 제조업회사는⁶⁾ 「朝鮮起業株式會社」를 제외하고 다시 6개로 줄었다. 제조업회사가 줄은 것은 2개의 제조업회사가 주력업종을 상업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1913년 불입자본금의 23.2%에 해당하는 6,969원의 큰 순이익을 기록한 「合名會社石川精米所」는 “정미 및 미곡위탁판매”를 영위했지만 미곡위탁판매에 주력하는 것으로 주업종을 바꾸었다. 또 「釜山鹽業合名會社」는 “원염의 구입, 정제 및 식염판매”를 하고 있었지만 거의 제염이나 재제염 없이 정제유통보급에 주력하는 것으로 바꾸었다(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6, 부록 회사현황). 1913년에 적자를 내고 있었던 「釜山鹽業合名會社」가 제조가 아닌 단순정제, 재판매로 주업종을 바꾼 것이나 「合名會社石川精米所」가 제조보다 위탁판매에서 더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자 전면적으로 위탁판매업에 주력하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진출 식품기업들이 장기적 제조이익보다 단기적 유통이익을 선호하는 식민지의 초기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는 일본기업의 진출에 의해 부산민들의 전반적인 소득증대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본인 중심의 한정된 기존 고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신규제조보다 익숙해져 있는 상표의 기존 선호제를 수입, 판매하는 것이 맞고 또 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제조업회사들은 1914년부터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어 시장경쟁의 효율성이 작동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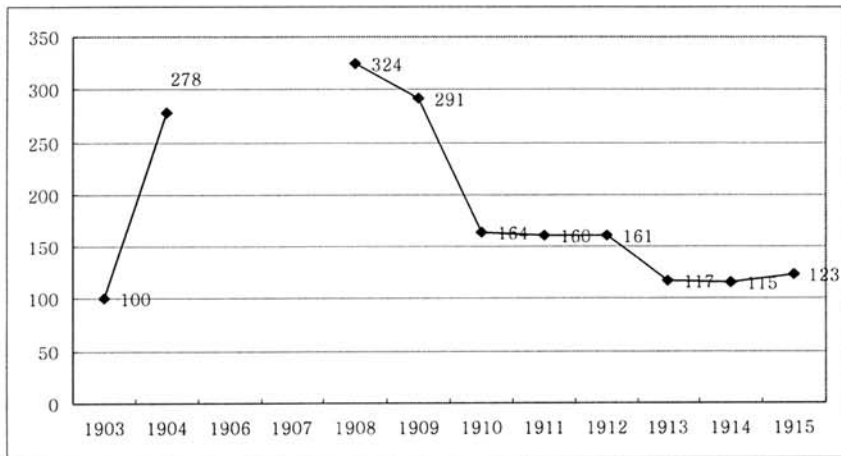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 전체의 영세성이 있었지만,⁷⁾ 1910년대 전반까

6) 『施政5年 記念誌』로 출간된 朝鮮物産共進會釜山府協贊會의 『釜山港勢一斑』(1915년 판)에 1914년 말로 추정되는 자료가 나오는데 역시 「合資會社淡盛商會」, 「合資會社朝鮮時報社」, 「釜山鹽業合名會社」, 「合名會社石川精米所」를 제외하고 제조업회사는 6개가 나와 있다. 또 釜山仕入案内社의 『釜山仕入案内』1915년판에서도 조사연도가 없는 제조업회사 6개가 기록되어 있다.

7) 1910년대 초 부산의 공장을 분석해 보면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노동보다 공장집중

지 부산제조업회사는 영세하였다. 회사는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공장보다 더 정형화된 조직이었다. 1908-1915년간 부산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의 영세화는 <그림 1>의 제조업회사 1사당 불입자본금의 감소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1910년 급속한 감소에는 앞서 지적했듯이 지점으로 바뀌면서 「釜山電燈會社」가 빠져나간 변수가 있었다.

【그림 1】 1910년 중반까지의 제조업회사 1사당 불입자본금 (백만 원)



자료: 相澤仁助 編, 『釜山港勢一斑』, 日韓昌文社, 1905. 相澤仁助編, 『韓國二大港實勢』, 日韓昌文社, 1905. 統監官房文書課, 『第一次統監府統計年報』, 1907. 統監府, 『統監府統計年報』, 1909-1910. 朝鮮總督府, 『統計年報』, 1911-1917.

주: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이용한 박영구, 2005a를 이용하여 환산.

이러한 부산제조업회사의 영세성은 1910년대 중반까지 부산제조업 발전의 애로요인이었다. <표 2>에서 보듯이 1910년대에 부산에서 융성했던 부문은 비누, 양초, 肥料 등의 화학공업이었고 공업입지상 船舶製造業, 製氷, 製염 등이 발전했음에도(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6, 1917) 이 분야의 회사가 발달하지 못하고 있음도 이런 영세성에 연유하는 것이었다. 선박제조업은 입지 조건과 경제적 상황이 맞아 1887년 1월에 瀛仙町에 「田中造船鐵工所」가 세워져 발동선 제작이 이미 시작되었고(朝鮮總督府殖産局, 『朝鮮工場名簿』, 1932), 1914-1915년에는 전국 선박제조업체 4개 중 2개가 부산에 있어 일찍부터 부산의 조선공업 입지가 정착되었지만(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6, 1917) 회사형태로까지 발전

도, 자본집중도가 높았다(박영구, 2005a).

하여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다. 제염업회사 역시 앞서 보았듯이 정착,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2】 1910년 대 前半 주요 업종별 공장의 전국 비교 (개, 원, 명, 원)

업종	지역	1914				1915			
		공장수	자본금	직공수	생산액	공장수	자본금	직공수	생산액
비누	부산	2	4,500	10	12,468	3	9,500	12	25,328
	전국	5	27,529	28	75,580	8	36,533	33	80,388
양초	부산	3	11,000	32	180,000	3	9,500	25	122,900
	전국	4	15,000	49	213,400	4	13,500	42	176,900
비료	부산	1	30,000	15	12,000	1	30,000	15	2,000
	전국	3	287,457	32	78,540	3	240,000	49	96,675
선박	부산	2	60,000	23	38,000	2	60,000	37	43,000
	전국	4	78,000	63	70,638	4	150,000	77	84,173
제분	부산	1	11,000	16	6,285	1	11,000	15	7,665
	전국	5	30,000	32	24,980	7	30,300	42	38,081
제면	부산	3	4,500	52	38,620	2	10,000	12	17,400
	전국	11	15,500	83	71,529	8	18,600	29	42,886
제빙	부산	1	10,000	8	18,882	1	80,000	11	24,582
	전국	2	14,000	25	35,802	2	126,183	30	33,654
제염	부산	5	91,000	64	101,019	11	101,000	87	208,969
	전국	12	180,000	202	350,905	13	397,000	189	405,588

자료: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6, 1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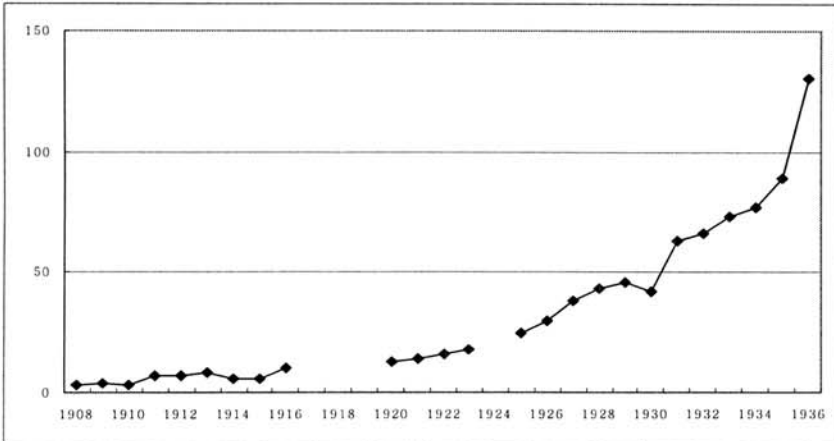
기업을 설립자 국적별로 보면 1913년 전국적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제조업회사가 4개, 한국인이 설립한 공업회사가 8개 있었으나 부산에는 하나도 없고 모두 일본인 영세회사였다. 1914년 전쟁특수의 시작으로 전국적으로는 한일공동 제조업회사가 다시 2개 늘어 6개가 되고 한국인 제조업회사가 7개 있었지만 부산에는 여전히 한국인의 제조업회사는 없었다. 1915년에도 동일했다.

Ⅲ. 전쟁과 구조조정, 1916-1929

1910년대 후반 들어 1916년부터 전쟁특수가 본격화되었다. 이와 함께

「회사령」이 실행에서 완화되면서 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림 2>에서 보듯이 정체되던 부산제조업기업수는 1916년 이래 상승곡면을 꾸준히 그리기 시작하였다.⁸⁾

[그림 2] 1908-1936년 부산의 제조업회사수 (개)



자료: 統監府, 『統監府 統計年報』, 1909, 1910.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1917. 釜山府, 『釜山府勢一斑』, 1917. 釜山府, 『釜山府勢要覽』, 1921-1924, 1927-1929, 1930, 1932-1934, 1936. 朝鮮總督府慶尙南道, 『慶尙南道統計年報』, 1927, 1929, 1932. 釜山府, 『釜山商工業內』, 1932. 釜山府, 『釜山の産業』, 1935, 1937. 朝鮮銀行調査部, 『經濟年鑑』, 1949.

주: 1)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합으로 구함. 이하 동일. 2) 1936년은 機具, 금속, 전기, 화학, 요업, 식품, 제재가구, 섬유, 제조, 인쇄출판회사의 합계로 1935년 값에 증가분을 합산하여 구함.

부산의 제조업기업의 구조와 성격을 보면 1916년 이후 뚜렷이 구분된다. 앞서 보았듯이 1915년까지 부산에서의 회사들은 공업보다 일본에서의 판매를 위한 상업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부산에서의 내수창출 및 수요전환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장기적 제조이익보다 단기적 유통이익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1910년대 중반까지도 두드러진 기업의 영세성이 있었다. 그러나 1910년대 후반 이러한 성격은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16년부터는 전쟁특수와 회사령 완화가 본격화되면서 제조업기업 창업이 부산에서 활발해 졌고 기업의 양적, 질적 변화도 나타났다.

8) 회사수가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1916년 조사부터 조선총독부는 『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회사자료를 전부 신지 않고 전국 요약만 신게 되었고 따라서 조선총독부 자료에서는 부산의 회사통계 자체를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었다.

釜山府가 발행한 「釜山府勢一斑」 1917년판에는 1916년 조사로 추정되는 공업회사 10개가 나와 있는데 제조업 회사는 지점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공업회사 전체로 볼 수 있다. 회사명부를 구할 수 없어 정확한 대조는 어렵지만 부산에는 전체 회사수가 3개 늘어나면서 제조업회사는 4개가 늘어나고 있어 전쟁특수가 본격화되면서 1916년 제조업기업 창업이 부산에서 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이 부산에 세운 첫 제조업 회사인 「株式會社慶南印刷」도 자본금 5만원으로 1916년 4월 14일에 설립되었다(〈朝鮮總督府官報〉, 1916. 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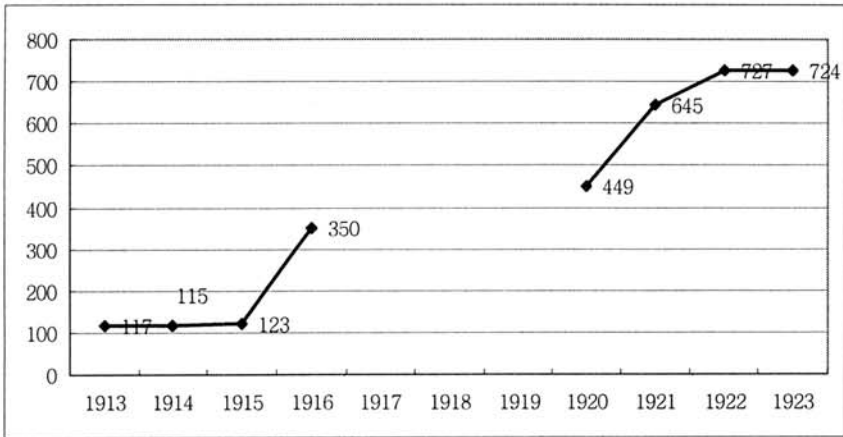
1917-1919년의 제조업회사는 『釜山府勢要覽』 1923년판에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총수만 나오고 회사명부를 구할 수 없어 알 수 없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과 함께 러시아로의 파병 등 확대된 전쟁특수와 회사령 완화 속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기업의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기존의 영세기업과는 다른 일본 대기업을 부산진입이라는 질적 변화도 가져왔음이 1920년대 회사별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일본대자본의 부산진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917년 「朝鮮紡織株式會社」의 창립이다. 이 회사는 부산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로도 기업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었는데, 부산 凡一町에 11월에 창립한 본회사의 공칭자본금은 500만 원에 달했다. 당시까지 제조업회사의 경우 계속 영세기업만이 진입하여 가장 큰 회사의 자본금이 10만 원에 불과하였다. 전 산업으로 확대하여도 부산에서 자본금 규모가 가장 컸던 綿絲布 무역업의 「高瀬合名會社」(1917)의 자본금이 230만 원이었고 海面埋築業의 「朝鮮起業株式會社」(1913)가 200만 원, 상업회사였던 「釜山水產株式會社」가 70만 원이었다(『釜山府勢要覽』, 1921). 1918년 설립된 무역업의 「朝鮮水產輸出株式會社」(1918), 「白山貿易株式會社」(1918)의 자본금도 1백만 원이었던 점에서 「조선방직주식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대규모였는지 알 수 있다.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중국침략을 진행하고 있었고 1919년에도 「朝鮮酒造株式會社」, 「帝國特許醬油慶尙釀造株式會社」, 「釜山商工株式會社」, 「釜山窯業株式會社」가 창립되어(『釜山府勢要覽』, 1921) 제조업회사 창립이 활발하였다. 이어 「釜山窯業株式會社」가 공칭자본금 50만 원으로 창립되어 「朝鮮紡織」에 이어 다시 대규모 제조업회사의 등장을 광고했다.

결국 1910년대 후반 1916-1919년은 전쟁으로 인해 회사령이 완화되면서 전쟁특수를 이용한 회사설립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았듯이 계속 감소하던 1사당 불입자본금 규모도 전시를 통해 창업과 함께 기업규모가 커져 <그림 3>에서 보듯이 1916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922년까지 계속 상승하였다.

【그림 3】 제조업회사 1사당 불입자본금액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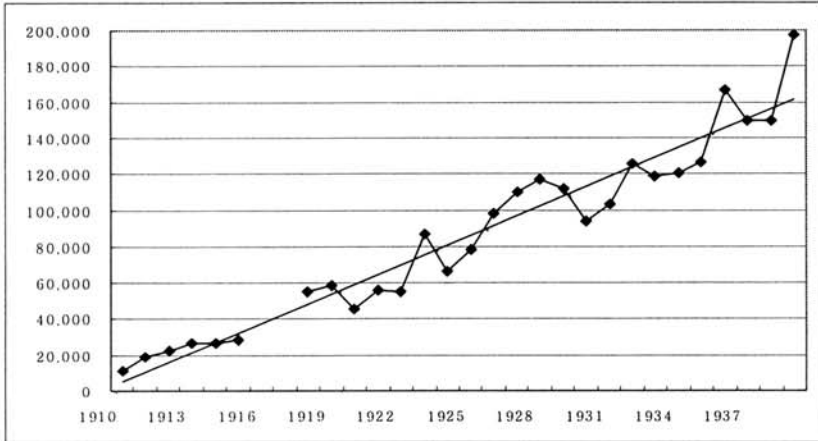


자료: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4-1917. 釜山府, 『釜山府勢一斑』, 1917. 釜山府, 『釜山府勢要覽』, 1921-1924. 朝鮮總督府慶尙南道, 『慶尙南道統計年報』, 1927.
주: <그림 1> 주와 동일.

전쟁이라는 외생변수를 기초로 시작된 경기호황에서 이렇게 부산의 제조업회사들이 활발히 설립되고 있었고 또 구조변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후 부산의 제조업발전에 일정한 제약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1910년대 전반부까지와 달리 전시를 통과하면서 나타나고 있었던 부산의 내수시장 확대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대규모 기업이 진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한편 <그림 3>에서 보듯이 부산의 제조업회사를 통하여 볼 때 일반성과 다른 지역특수성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전국, 나아가 엔화경제권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1920년대 전반부 戰後 수요격감에 따른 충격이 부산의 제조업 회사와 관련하여 그 결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후 1920년대 들어와 일시적으로 종전에 따른 수요 감소라는 충격이 있었고 <그림 4>에서 보듯이 동행지수 대 변수로서 공장생산액으로 보아도 1920-1925년은 추세선 아래로 내려가는

불황이 관찰된다. 그러나 부산의 제조업 회사로 보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그림 4】 공장생산액 (2000년 불변가격)



자료: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2-1915. 釜山府, 『釜山府勢要覽』, 1923-1924, 1927, 1928, 1930, 1933, 1934. 釜山府, 『釜山商工案内』, 1934. 釜山府, 『釜山の産業』, 1935, 1937, 1938, 1940, 1942. 釜山商工會議所, 『統計年報』, 1938.

주: 1) 5인 이상 종사자 규모 혹은 5인 이상 종사자 설비규모를 갖춘 공장임. 이하 동일.
 2) 누락값을 타 연도에서 찾을 경우 창립일 이후 월수만큼만 계산함. 3) 창립일이 12월인 경우 당해 연도에서 제외함. 4) 가운데 직선은 추세선임. 4) 한국은행이 작성한 생산자 물가지수를 사용한 저자의 선행연구(박영구, 2005a)를 이용하여 환산.

1920년대 전반기의 제조업회사를 설립연도, 불입자본금과 함께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1920년의 제조업회사는 『大正10年朝鮮總督府慶尙南道統計年報』 1923년판에서 상업, 수산, 기타회사로 분류된 회사 「釜山水産」, 「朝鮮水産輸出」, 「東成商會」, 「新納商店」, 「朝鮮起業株式會社」와 『大正11年朝鮮總督府慶尙南道統計年報』 1924년판에서 운수회사로 분류된 「釜山丸漁合資會社」를 제외하고 14개사였다. 그런데 「株式會社川井印刷所」는 사실 창립연월이 1921년 3월이므로 제외하면 13개사의 제조업회사가 있었다. 13개 제조업회사는 주식회사에 「釜山煙草」(창립 1907), 「丸金酒造」(1908), 「辻酒造」(1911), 「慶南印刷」(1916), 「朝鮮紡織」(1917), 「朝鮮酒造」(1919), 「帝國特許醬油慶尙釀造」(1919), 「釜山商工」(1919), 「釜山窯業」(1919)의 9개, 「合資會社釜山飲料社」(1910)의 합자회사 1개, 「釜山精米所」(1904),

「上山商行」(1908), 「石川精米所」(1913)의 합병회사 3개이다. 이들 회사를 불입자본금 규모로 나누어 보면 「朝鮮紡織」이 2,500,000원, 「辻酒造」가 100,000원으로 대기업이었고 그 다음은 중소기업으로 「釜山商工」이 50,000원, 「釜山煙草」가 45,000원 등으로 1910년대 후반 대기업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제조업기업들은 영세한 채로 머물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기업들이 終戰에 따른 수요축소로 자본불입 확대 등을 일시적으로 늦춘 것에도 원인이 있었다.

【표 3】 1920년대 제조업회사

		회사명(설립연도, 불입자본금)	개수
1920 13사	주식 회사	釜山煙草(1907, 45,000원), 丸金酒造(1908, 33,600), 辻酒造(1911, 100,000), 慶南印刷(1916, 17,500), 朝鮮紡織(1917, 2,500,000), 朝鮮酒造(1919, 25,000), 帝國特許醬油慶尙釀造(1919, 25,000), 釜山商工(1919, 50,000), 釜山窯業(1919, 12,500)	9
	합자 회사	釜山飲料社(1910, 10,000원)	1
	합명 회사	釜山精米所(1904, 68,000원), 上山商行(1908, 50,000), 石川精米所(1913, 50,000)	3
1921 14사	주식 회사	釜山煙草(1907, 동), 丸金酒造(1908, 56,500), 辻酒造(1911, 47,500), 慶南印刷(1916, 동), 朝鮮紡織(1917, 3,000,000), 釜山商工(1919, 100,000), 大正醬油(1919, 35,000), (주)川井印刷所(1921, 70,000)	8
	합자 회사	釜山飲料社(1910, 동), 滿留嘉久(1921, 65,000)	2
	합명 회사	釜山精米所(1904, 83,000원), 上山商行(1908, 동), 石川精米所(1913, 동), 學校用品製作所(1920, 4,000)	4
1922 16사	주식 회사	丸金酒造(1908, 동), 辻酒造(1911, 동), 慶南印刷(1916, 동), 朝鮮紡織(1917, 4,000,000), 釜山商工(1919, 동), (주)川井印刷所(1921, 동), +朝鮮船渠工業(1922, 40,000), 사쯔야마(さつや)製菓(1922, 12,500)	8
	합자 회사	釜山飲料社(1910, 동), 滿留嘉久(1921, 동), 早川防水布製造所(1922, 10,000)	3
	합명 회사	釜山精米所(1904, 90,000원), 上山商行(1908, 동), 石川精米所(1913, 동), 古川釀造所(1922, 10,000), 山峰코크스(코ーク스)製造販賣業(1922, 24,000)	5
1923 18사	주식 회사	丸金酒造(1908, 동), 辻酒造(1911, 동), 慶南印刷(1916, 동), 朝鮮紡織(1917, 동), 釜山商工(1919, 동), (주)川井印刷所(1921, 동), 朝鮮船渠工業(1922, 400,000), 사쯔야마(さつや)製菓(1922, 동)+日本海産興業(1922, 100,000)	9
	합자 회사	釜山飲料社(1910, 동), 滿留嘉久(1921, 동), 早川防水布製造所(1922, 동), 黑江藥石堂(1922, 20,000)	4
	합명 회사	釜山精米所(1904, 동), 上山商行(1908, 동), 石川精米所(1913, 동), 新納商店(1920, 25,000), 山峰코크스(코ーク스)製造販賣業(1922, 동)	5

자료: 釜山府, 『釜山府勢要覽』, 1921-1924, 1927. 『朝鮮總督府慶尙南道統計年報』, 1923, 1924.

이러한 전후 종전에 따른 수요 감소와 이에 이은 정상적인 구조조정으로 1921년에는 「辻酒造株式會社」가 불입자본금을 100,000원에서 47,500원으로 오히려 52,500원 줄이고 있고 1919년 창립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한 「朝鮮酒造株式會社」, 「釜山窯業株式會社」 등이 해체되는 현상도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1910년대 말의 호황국면에 사고를 두고 「株式會社川井印刷所」, 「滿留嘉久合資會社」와 1920년 창립한 「合名會社學校用品製作所」가 새로이 회사로 등록하였다. 「帝國特許醬油慶尙釀造」와 「大正醬油」는 창립 연도와 주소, 자본금이 같고 회사명부에 동일연도에 실리지 않았으며 이은 연도에 이어 나오는 것 등에서 동일회사로 추정된다. 기록상 창립월이 1월과 9월로 다르지만 1921년판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에 의하면 창립일은 1919년 9월 15일이다. 1921년에는 「朝鮮紡織株式會社」가 불입자본금을 500,000원, 「丸金酒造株式會社」가 22,900원, 「釜山商工株式會社」가 50,000원, 「合名會社釜山精米所」가 15,000원 불입자본금을 늘리고 있으며 「大正醬油」 역시 불입자본금을 10,000원 늘리고 있다. 여기에 이 해에 신설된 「株式會社川井印刷所」와 「滿留嘉久合資會社」의 공칭, 불입자본금이 각각 70,000원, 65,000원으로 비교적 중소기업 중 높아 전체적으로 제조업회사 1사당 불입자본금은 앞의 〈그림 3〉에서 보듯이 불변가격 대비 43.7%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1922년에도 이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종전충격이 둔화되면서 오히려 1922년은 5개 신설 제조업회사가 생기는 등 매우 활발한 제조업회사 창업이 이루어졌다. 1923년에 등록된 통조림제조업의 「日本海産興業」(1922, 자본금 100,000원, 영선동), 「黑江藥石堂」(1922, 자본금 20,000원)을 합하면 사실 1922년에 7개의 신규 제조업기업이 창업한 것이다. 주식회사에서는 「朝鮮船渠工業株式會社」, 「사쯔야마(さつまや)製菓株式會社」(공칭자본금 5만원, 불입자본금 12,500원)가 신규 설립되었다. 「朝鮮船渠工業株式會社」는 선박제조, 수선, 汽機, 기관, 기관차, 機具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영선동(瀛仙洞)에서 1922년 3월 공칭, 불입자본금 4만원으로 설립되었다. 영선동은 이미 1887년 1월에 「田中造船鐵工所」가 최초로 세워져 조선관련 기계기구공업을 시작한 造船工業의 선구지였던 곳이다.⁹⁾ 합자회사로 「早川防水布製造所」(1922, 공칭, 불입자본금 1만원)

9) 朝鮮總督府殖産局, 『朝鮮工場名簿』, 1932.

가 설립되었고 합명회사는 「古川釀造所」(1922, 공칭, 불입자본금 1만원), 「山峰코크스(코크스)製造販賣業」(1922, 공칭, 불입자본금 2만 4천원)이 새로 창립되었다. 신규 설립된 회사들은 자본금 10만원의 「日本海山興業」을 제외하고 불입자본금 1-4만 원의 영세기업 특히 합자, 합명회사는 불입자본금 24,000원 미만의 소규모 영세기업들이었다. 그러나 「朝鮮紡織株式會社」가 이해 불입자본금을 100만 원 늘렸고 「부산정미소」도 7,000원 늘리는 등 기존회사의 불입자본금 확대로 제조업기업 1사당 평균 불입자본금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도 종전 수요감소와 구조조정으로 주식회사에서는 1907년 설립된 「釜山煙草株式會社」와 1919년 설립된 「大正醬油株式會社」가 문을 닫았고 합명회사는 「學校用品製作所」(1920)가 폐업하였는데 종전후 폐업한 회사들은 「朝鮮酒造株式會社」(1919), 「釜山窯業株式會社」(1919), 「大正醬油株式會社」(1919), 「學校用品製作所」(1920) 등의 예에서 보듯이 전시기 특수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서, 경기변동이 거의 정점을 통과하면서 설립되어 합리적 기대형성에 실패한 회사들이었다.

1923년 제조업회사는 18개로(釜山府, 『釜山府勢要覽』, 1924; 「大正11年慶尙南道統計年報」, 1925) 다시 전년 대비 2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사실은 1923년 새로 창립된 회사는 없으며 앞서 지적했듯이 1922년에 창립된 2개 회사가 새로 등록한 것이고 상업회사였던 「新納商店」이 철물제조를 주업으로 바꿈으로써 제조업회사로 바뀐 데다가 이에 더하여 「古川釀造所」(1922)가 해산되어 순수로 2개가 늘어난 것이다. 「朝鮮船渠工業株式會社」의 1922년 공칭자본금과 불입자본금이 각각 40,000원이었으나 이것이 1923년 각각 400,000원으로 10배 늘어나고 있는 등¹⁰⁾ 1923년에도 일부 자본증자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1923년에는 새로운 대기업의 진입이 없고 자본금 증가가 계속 정체되어 꾸준히 증가하던 제조업 1사당 불입자본금은 정체하고 있다.

1924-1925년은 전후 불확실성과 전후 구조조정의 저점이 인식적으로도 실행상으로도 분명히 나타나고 2차 확장이 다시 시작된 시기였다. 제조업회사는 1923년 18개 제조업회사에서 2년간 순수로 7사가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釜山商工株式會社」(1919년 창립, 자본금 200,000원),¹¹⁾

10) 「釜山府勢要覽」에서만이 아니라 「慶尙南道統計年報」(1924)에서도 1922년 40,000원으로 기록되었다가 「慶尙南道統計年報」(1925, 1928)에서 1923년, 1925년 40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기일 가능성은 없다.

「日本海産興業株式會社」(1922, 100,000원), 「合資會社滿留嘉久」(1921, 65,000원), 「合資會社黑江藥石堂」(1922, 20,000원), 「合名會社新納商店」(1920, 25,000원) 등이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신규 제조업회사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釜山商工」이나 「日本海産興業」은 자본금 10만 원 이상의 대기업이었고 「新納商店」은 1923년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조업으로 업종을 바꾸어 보았으나 결국 퇴출당했는데 역시 모두 신규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활발한 제조업 회사의 교체와 진입은 다시 추세적인 경기확장의 재점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1925년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920년 7월에¹²⁾ 제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었던 瀛仙町에서 한일합작으로 설립된 「日本硬質陶器株式會社」이다. 이 기업은 영도에 1917년 자본금 100만원으로 「朝鮮硬質陶器株式會社」를 세우고 1920년에 자본금을 375만 원으로 늘리면서 일본의 본사에 합병된 뒤 1924, 1925년에 회사등록을 하였는데 그 자본금이 3,750,000원에 이미 불입자본금만도 937,500원에 이르는 대기업으로 아예 1925년에는 본사도 부산으로 옮겨 동남아와 중국, 만주 등지에 수출하고 있었다. 25개 제조업회사의 불입자본금합은 6,854,900원이었는데 불입자본금을 450만 원으로 늘린 「朝鮮紡織」과 「日本硬質陶器」 2개사의 불입자본금이 전체의 79.3%를 차지할 정도였다. 1920년대 전반기는 거대 두 회사가 있는 가운데 이와는 규모에서 차이가 큰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 후반 대공황 이전 2차 확장기의 제조업회사의 변화와 그 성격을 보기 위해 우선 전반적인 제조업회사의 형태를 기업형태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1927-1929년간 제조업회사 변화를 보면 <표 4>에서 보듯이 숫자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합자회사가 변화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27-1929년간 제조업회사수가 8개, 21.1%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불입자본금은 3.1%만이 증가했다. 규모가 컸던 주식회사의 불입자본금은 2년간 2.4% 증가에 그쳤으며 합명회사의 경우 회사수 2개 감소와 함께 불

11) 「釜山商工株式會社」는 1927년 4월 1일에 합자회사로 재창립되었다.

12) 「釜山府勢要覽」(1927)에는 6월로 나와 있다.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6월에 창립 하되 7월로 넘겨 창립식을 가진 것이다.

입자본금이 오히려 7.2% 감소했다. 1920년대 말 제조업회사는 소규모의 제조업회사에서 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표 4】 1920년대 후반 부산의 제조업 회사 (경상가격)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합계	
	회사수	불입자본금	회사수	불입자본금	회사수	불입자본금	회사수	불입자본금
1927	9	6,452,200	21	245,320	8	540,500	38	7,237,820
1928	9	6,577,500	28	335,173	6	501,500	43	7,414,173
1929	10	6,607,500	30	353,173	6	501,500	46	7,462,173

자료: 釜山府, 『釜山府勢要覽』, 1928, 1929, 1930, 1932, 1934. 『慶尙南道統計年報』, 1927, 1929.

1920년대 후반의 제조업기업의 변화를 보다 세밀히 추적해 보기 위해 자본금 10만 원 이상의 회사들만을 골라 공황 이전 1926-1929년간 정리 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대공황 이전 주요 제조업 회사(자본금 10만 원 이상, 1926-1929)

		창립	업종	자본금	불입액	주소	
1926	주식회사	丸金酒造	1908.12 酒醱類양조업	100,000	56,500	富平町	
		辻酒造	1911.6 주류제조판매	100,000	58,000	부평정	
		朝鮮紡織	1917.11 면포면사제조등	5,000,000	4,500,000	凡一町	
		朝鮮水産輸出	1918.8 수출수산물제조 등	1,000,000	400,000	本町	
		日本硬質陶器	1920.6 도기제조판매	3,750,000	937,500	瀨仙町	
		朝鮮船渠工業	1922.3 선박제조수선 등	400,000	400,000	瀨仙町	
	합명	上山商行(1908)	1908.1 장유양조업 등	100,000	100,000	佐川町	
		大池精米所	1924.6 정미 및 위탁 등	250,000	250,000	高島町	
	1927	주식회사	丸金酒造	1908.12 酒醱類양조업	100,000	56,500	富平町
			辻酒造	1911.6 주류제조판매	100,000	58,000	부평정
朝鮮紡織			1917.11 면포면사제조등	5,000,000	4,500,000	凡一町	
朝鮮水産輸出			1918.8 수출수산물제조 등	1,000,000	400,000	本町	
日本硬質陶器			1920.6 도기제조판매	3,750,000	937,500	瀨仙町	
朝鮮船渠工業			1922.3 선박제조수선 등	400,000	400,000	瀨仙町	
합명		上山商行(1908)	1908.1 장유양조업 등	100,000	100,000	水晶町	
		大池精米所	1924.6 정미 및 위탁 등	250,000	250,000	大倉町	
1928		주식회사	丸金酒造	1908.12 酒醱類양조업	100,000	56,500	富平町1
			辻酒造	1911.6 주류제조판매	100,000	58,000	부평정2
	朝鮮紡織		1917.11 면포면사제조등	5,000,000	5,000,000	凡一町	
	朝鮮水産輸出		1918.8 수출수산물제조 등	1,000,000	400,000	本町1	

		日本硬質陶器	1920.6	도기제조판매	3,750,000	937,500	瀨仙町
	합명	上山商行(1908)	1908.1	장유양조업 등	100,000	100,000	水晶町
		大池精米所	1924.6	정미 및 위탁 등	250,000	250,000	大倉町4
1929	주식회사	丸金酒造	1908.12	酒醪類양조업	100,000	56,500	富平町1
		辻酒造	1911.6	주류제조판매	100,000	58,000	부평정2
		朝鮮紡織	1917.11	면포면사제조등	5,000,000	5,000,000	凡一町
		朝鮮水産輸出	1918.8	수출수산물제조 등	1,000,000	400,000	本町1
		日本硬質陶器	1920.6	도기제조판매	3,750,000	937,500	瀨仙町
	합명	上山商行(1908)	1908.1	장유양조업 등	100,000	100,000	水晶町
		大池精米所	1924.6	정미 및 위탁 등	250,000	250,000	大倉町4

자료: 釜山府, 『釜山府勢要覽』, 1927-1930.

전반적으로 공황 이전 1920년대 후반 확장기의 주요 대기업에서는 뚜렷한 특징과 구조적으로 의미있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시기적으로 떼어내어 1926년을 보면 이미 자본금 1,000,000원이 넘는 주식회사로 「朝鮮紡織」이 자본금 5,000,000원에 불입자본금 4,500,000원, 「日本硬質陶器」가 자본금 3,750,000원에 불입자본금 937,500원, 「朝鮮水産輸出」이 자본금 1,000,000원에 불입자본금 400,000원의 대기업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朝鮮船渠工業」이 자본금, 불입자본금 400,000원의 대회사로 있었고 「丸金酒造」, 「辻酒造」가 자본금은 100,000원이었지만 불입은 6만원을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주식회사가 아닌 자본금 10만 원 이상의 회사로는 1908년 창립한 「上山商行」, 「大池精米所」의 2개 합명회사가 있었는데 이중 「大池精米所」는 합명회사였지만 자본금이 200,000원, 불입자본금 200,000원의 대규모 정미·위탁회사였다. 1927년에는 합명회사인 장유양조업의 「上山商行」이 불입자본금을 자본금 100,000원으로 맞추고 있지만 다른 주요 기업들의 변화는 없었다.

1920년대 대공황 이전 부산의 제조업회사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꾸준한 제조업체수 증가와 특징적인 기업 부침이 발견된다. 중소기업은 물론 「釜山商工株式會社」(1919년 창립, 자본금 200,000원), 「日本海産興業株式會社」(1922, 100,000원) 등 대기업의 몰락도 계속되었다. 이는 여전히 1920년대가 전후 수요감소와 구조조정 그리고 2차확장이라는 혼합적 성격 하에서 부산 제조업회사들이 안정기나 발전기적 성격보다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속에서 자본금 100만 원 이상의 「朝鮮紡

織, 「日本硬質陶器」, 「朝鮮水産輸出」 등 제조업 대회사가 등장하고 합명 회사에서도 「上山商行」, 「大池精米所」 등 자본금 100,000원 이상의 회사가 2개 등장하고 있지만 1920년대는 여전히 많은 제조업기업들이 영세한 형태로 존재했으며 시장 등 구조적으로 뚜렷한 변화나 특징을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특히 1920년대 후반기에는 규모가 가장 작은 합자회사들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당연히 제조업회사수의 변동폭보다 전체 불입자본금의 변화가 더 작은 질적인 정체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 제조업회사에 변화를 촉진시킨 것은 1910년대 후반에도 그러했듯이 공황이라는 외부충격이었다.

IV. 공황과 대응, 1930-1936

공황은 전후 불확실성 위에서 1920년대 완만하던 기업들의 움직임에 생존과 기회포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이미 1925년 창립되어 약제상을 하던 「朝鮮製藥株式會社」는 1930년에 업종에서 藥種제조업을 강화함으로써 제조업회사로 새로 등록하였다. 凡一町에서 자본금 1,000,000원, 불입자본금 600,000원으로 7월에 창립한 「大鮮釀造株式會社」는 日本 「大日本酒類釀造株式會社」가 1929년 5월에 부산공장으로 설립하였다(김의환, 1972, pp.1024-1025) 1930년 7월 1일 대표를 池見辰次郎,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하여 「大鮮釀造株式會社」로 독립하였다(〈朝鮮總督府官報〉, 1930. 8. 15). 소주양조능력은 연산 3만석이었고 직공수는 60여명이었다. 「朝鮮水産輸出株式會社」는 본격적인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회사의 성격을 바꾸고 있고 마찬가지로 「上山商行」(1908) 역시 제조부문을 약화시켜 주업종을 바꾸고 있다. 1931년에는 「大鮮釀造」도 주요업무에서 양조를 하지 않고 '주류청량음료공업용약품의 판매업'으로 주요업종을 바꾸고 있다. 공황은 초기에 기업들에게 자신의 입장에서 보다 수익성이 남는 부문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전환을 모색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황기 부산의 제조업회사 움직임을 보다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자본금 10만 원 이상 회사만을 뽑아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공항기 주요 제조업 회사(자본금 10만원 이상, 1930-1933)

		창립	업종	자본금	불입액	주소	
1930	주식회사	丸金酒造	1908.12	酒酢類양조업	100,000	56,500	富平町1
		辻酒造	1911.6	주류제조판매	100,000	58,000	부평정2
		朝鮮紡織	1917.11	면포면사제조등	5,000,000	5,000,000	凡一町
		朝鮮製藥	1925.4	賣藥藥種제조판매	100,000	25,000	辨天町2
		大鮮釀造	1930.7	주류양조업	1,000,000	600,000	凡一町
		日本硬質陶器	1920.6	도기제조판매	3,750,000	937,500	瀧仙町
합명	大池精米所	1924.6	정미 및 위탁 등	250,000	250,000	大倉町4	
1931	주식회사	丸金酒造	1908.12	酒酢類양조업	100,000	56,500	富平町1-10
		辻酒造	1911.6	주류제조판매	100,000	58,000	부평정2-68
		朝鮮紡織	1917.11	면포면사제조등	5,000,000	5,000,000	凡一町700
		日本硬質陶器	1920.6	도기제조판매	3,750,000	937,500	瀧仙町1-21
		朝鮮製藥	1925.4	賣藥藥種제조판매	100,000	25,000	辨天町2-9
		丸大 고무(ゴム)	1931.4	고무화, 제품제조	250,000	250,000	凡一町942
立石商店	1931.12	유류 제조 가공	500,000	500,000	本町1-525		
합명	大池精米所	1924.6	정미 및 위탁 등	250,000	250,000	大倉町4-18	
1932	주식회사	丸金酒造	1908.12	酒酢類양조업	100,000	56,500	富平町1-10
		辻酒造	1911.6	주류제조판매	100,000	58,000	부평정2
		朝鮮紡織	1917.11	면포면사제조등	5,000,000	5,000,000	凡一町
		日本硬質陶器	1920.6	도기제조판매	3,750,000	937,500	瀧仙町1-21
		丸平 토마토사딘(トマトサーヂン)	1932.5	수산물통조림제조	100,000	25,000	南濱町1
		朝鮮製藥	1925.4	賣藥藥種제조판매	100,000	25,000	辨天町2-9
		南鮮護謄工業	1932.4	고무화제조판매	100,000	25,000	凡一町
		(주)田中造船鐵工所	1931.7	조선업	100,000	75,000	瀧仙町
		大鮮釀造	1930.7	주류양조업	1,000,000	600,000	凡一町
丸大 고무(ゴム)	1931.4	고무화, 제품제조	250,000	250,000	凡一町942		
立石商店	1931.12	유류, 製綿 등	500,000	500,000	本町1-525		
합명	大池精米所	1924.6	정미 및 위탁 등	250,000	250,000	大倉町4	
1933	주식회사	丸金酒造	1908.12	酒酢類양조업	100,000	56,500	富平町1
		辻酒造	1911.6	주류제조판매	100,000	58,000	부평정2
		朝鮮紡織	1917.11	면포면사제조등	5,000,000	5,000,000	凡一町
		日本硬質陶器	1920.6	도기제조판매	3,750,000	937,500	瀧仙町
		丸平 토마토사딘(トマトサーヂン)	1932.5	수산물통조림제조	100,000	25,000	南濱町1
		朝鮮製藥	1925.4	賣藥藥種제조판매	100,000	25,000	辨天町2-9
		(주)田中造船鐵工所	1931.7	조선업	100,000	75,000	瀧仙町
		大鮮釀造	1930.7	주류양조업	1,000,000	600,000	凡一町
丸大 고무(ゴム)	1931.4	고무화, 제품제조	300,000	300,000	凡一町942		

	立石商店	1931.12	유류, 製綿 등	500,000	500,000	本町1
	魚(乙)彬製藥	1933.5	제약업	150,000	37,500	榮町1
	朝鮮製網	1933.7	마닐라로프제조	250,000	250,000	瀛仙町

자료: 釜山府, 『釜山府勢要覽』, 1930, 1933, 1934. 釜山府, 『釜山商工案内』, 1932. 경상남도, 『慶尙南道統計年報』, 1930. 경상남도, 『慶尙南道統計年報』1932.

주: 1) 1933년 「立石商店」의 창립일이 1930년 12월로 된 것은 1921년 12월의 오식이므로 정정함. 2)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3년판)에 의하면 「田中造船鐵工所」의 창립일은 1931년 11월 6일이며 주소는 영선정 1989인. 3) 밑줄은 변경 혹은 신규 항목임.

우선 1931년 제조업회사의 회사형태를 보면 회사수에서 합자회사가 압도적인 구조로 회사가 창립되고 있었지만 자본금 100,000원 이상의 주요 제조업기업은 합자회사는 물론 합명회사도 매우 드물었다. 1931년 말 부산의 합자회사는 총 160(1933년 193, 1935년 200)개사에 달하고 있었지만 공칭자본금이 10만 원 이상의 제조업회사는 없었다. 합자회사중 공칭자본금이 10만원을 넘는 회사는 비제조업회사에서도 자본금 500,000원에 불입자본금 500,000원으로 1927년 창립된 「釜山築港合資會社」가 유일했다(釜山府, 『釜山府勢要覽』, 1934, p.190). 이후 1933년 4월에 자본금 20,000원으로 창립했다 1934년에 공칭자본금 200,000원, 불입자본금 200,000원으로 증자한 「合資會社小宮黑鉛鑛業所黑煙鑛業」, 1935년 창업한 「神崎漁業合資會社」(자본금 100,000원), 그리고 토목건축업의 「合資會社田中組(100,000원)」, 「合資會社中谷組(100,000원)」가 있었다(釜山府, 『釜山の産業』, 1935. 釜山府, 『釜山府勢要覽』, 1936). 반면 1931년 부산의 주식회사는 64(1933년 66, 1935년 85)개사였지만 이 중 10만 원 이상 제조업회사가 7사가 있었다. 합명회사는 26(1933년 34, 1935년 35)개사가 있었지만 공칭자본금 10만 원 이상 제조업회사는 「大池精米所」 오직 1개사뿐이었다. 회사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던 합자회사의 1933년 1사당 평균 자본금은 15,375원, 불입자본금은 1,430원에 불과했다.

마침내 1933년부터는 자본금 10만 원 이상 제조업기업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서는 사라지고 주식회사만 존재하게 되어 부산 역시 공황을 통과하면서 주식회사제조업시대가 열렸다. 공황기에 들어와 부산의 제조업회사는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던 합자회사들이 매우 영세하였고 전체적인 영세성 속에서 대규모 제조업기업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진입, 발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황기 생존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규모가 커질

수록 주식회사가 자본모집, 규모의 경제 등 경쟁상의 효율성을 더 높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는 세계사적인 현상이(정창영, 이종욱, 박영구, 2001, p.88) 부산지역에서도 그대로 관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공황기를 통과하면서 규모에 따른 제조업회사조직의 양분화는 <표 7>의 결과로 요약되었다.

<표 7>을 보면 1933년에 합명회사는 8개사에서 6개사로 줄었고 1934년 합명회사수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불입자본금 변화에서 보듯이 매우 영세한 기업들의 진입이었다. 합자회사 역시 1934년에는 5개사가 줄고 있고 이후 1935년 늘어난다고 하지만 역시 영세기업의 진입이어서 오히려 불입자본금이 줄고 있었다. 그 결과 규모를 반영하는 회사당 불입자본금을 보면 1935년 주식회사는 345,234원인데 비해 합자회사는 7,564원, 합명회사는 26,750원에 불과하였다.

【표 7】 공황기 부산의 제조업 회사 (경상가격)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합계	
	회사수	불입자본금	회사수	불입자본금	회사수	불입자본금	회사수	불입자본금
1931	13	6,985,000	41	368,620	9	422,350	63	7,775,970
1932	16	7,700,000	42	408,860	8	418,500	66	8,527,360
1933	17	8,012,500	50	492,020	6	203,500	73	8,708,020
1934	21	9,507,500	45	457,430	11	280,000	77	10,244,930
1935	32	11,047,500	47	355,500	10	267,500	89	11,670,500

자료: 釜山府, 『釜山商工案内』, 1932, 1934. 釜山府, 『釜山の産業』, 1935, 1937. 釜山府, 『釜山府勢要覽』, 1933, 1934, 1936. 『慶尙南道統計年報』, 1932.

공황기 대규모 주식회사 중심의 양극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징을 연도별, 기업별로 추적해 보자. 1931년 4월에 「丸大ゴム株式會社」가 고무신, 고무제품 제조회사로 凡一町에서 창립되었다. 자본금은 250,000원이었고 첫 해에 모두 불입되었다. 또 「株式會社立石商店」도¹³⁾ 12월에 제조업회사로 등록되었는데 유류일체의 수입 및 제조가공, 카바이트로스크, 製綿, 타이어수입 회사로 공칭자본금이 500,000원이고 역시 등록 첫 해에 모두 불입되었다. 공황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많은 기업들에게 충

13) 이 회사는 釜山府의 『釜山商工案内』1932년판에서 창립년월이 1931년 12월로 기록되어 있으나, 釜山府의 『釜山府勢要覽』1932년판, 1933년판에서는 모두 1930년 12월로 정정되어 기록되어 있다.

격과 몰락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른 한편 「大鮮釀造株式會社」, 「丸大 고무(ゴム)株式會社」, 「株式會社立石商店」의 예에서 보듯이 일부 기업에게는 오히려 창업과 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회였다. 그래서 1931년에는 제조업기업의 활발한 몰락 속에서 기업 M&A와 창업이 진행되어 1931년 말 부산의 제조업회사는 1930년 42개사에서 63개사로 폭등하였고¹⁴⁾ 63개사 중 36.5%가 1931년 한 해에 신규설립된 회사였다(박영구, 2005a, p.287). 이 해에 설립, 재설립된 제조업회사로 주식회사는 「丸大護謄」, 「立石商店」 외에 「田中造船鐵工所」, 「江原食品」이 있었고 합자회사는 「伊福鐵工所」, 「寸井商店」, 「菱岩護謄製造」, 「友金正商店」, 「北西鐵工所」, 「安村商店」, 「共營物産」, 「金田精米所」, 「共榮印房」, 「三和精米所」, 「栗林商店」, 「高橋酒造所」, 「大東酒造場」, 「宮中商會」, 「釜山酒造」, 「森永로크로木型製作工場」, 그리고 합명회사로 「山本金物店」, 「釜山水産食品」, 「釜山麵子製造」가 있었다(釜山府, 『釜山商工案内』, 1932).

1932년 들어와 1928년의 「株式會社釜山造船鐵工所」에 이어 같은 瀛仙町에서 1931년 창립한 자본금 10,000원의 「株式會社田中造船鐵工所」(釜山府, 『釜山商工案内』1932)는 공칭자본금을 100,000원으로 상향하고 불입자본금도 75,000원을 채워 대대적 사업확장을 꾀했다. 造船工業이 부산의 항구입지에 따라 발전하고 있었다면 고무공업은 원료집산과 함께 온후한 기후로 부산이 절대 우위를 가지면서 발전한 공업이었다. 이런 생산조건하에서 「南鮮護謄工業」이 1932년 4월 고무화제조판매를 사업내용으로 공칭자본금 100,000원, 불입자본금 25,000원으로 凡一町에서 창업했지만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몰락한 반면, 대자본인 「丸大 고무(ゴム)株式會社」는 1933년 오히려 자본금을 300,000원으로 올리고 전액 불입하며 규모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기업들의 변화는 공황기를 이용한 한쪽에서의 규모 집중과 한쪽에서의 몰락이라는 양극화가 중화학공업 전분야에서 전형적인 공황의 모습으로 진행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공황기 제조업기업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제한적인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1932년에는 수산물통조림제조기업인 「丸平토마토사단(トマトサーヂン)」이 공칭자본금 100,000원, 불입자본

14) 釜山府, 『釜山府勢要覽』, 1932. 釜山府, 『釜山商工案内』, 1932. 慶尙南道, 『昭和5年慶尙南道統計年報』, 1932.

금 25,000원으로 南濱町1丁目에서 5월에 창립했다. 당시 일본의 정어리 통조림산업은 세계최대 경쟁국인 미국을 제치고 南洋, 인도 방면으로 수출하고 있었으며 이미 1930년에 三井이 「東洋製罐株式會社」와 협정을 맺으면서 본격 통조림 수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釜山日報〉, 1930. 10. 22).¹⁵⁾ 「丸平토마토사딘(トマトサーチン)」 창업은 공황하에서 정어리가공수출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부산현지생산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부산의 공업이 해외시장 지향형으로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국내수요의 한계에 봉착한 일본기업들의 해외시장 추구에 편승한 대공황기였다. 1935년 「丸平토마토사딘(トマトサーチン)株式會社」가 「丸平水産工業株式會社」로 사명을 바꾸고 종합수산공업회사를 표방하면서 불입자본금도 100% 늘려나가는 등 이러한 해외지향노력은 계속되었고, 1936년에는 부산제조업의 수출대상국과 수출품목의 급속한 팽창으로 결실되어 부산의 輸出 移出 대상국가는 1935년의 81개국에서 97개국으로 급등했다(釜山稅關, 『釜山港貿易概覽』, 1937, 2권, 1939, 1940). 부산이 일본과 엔화블록 이외의 지역에 주로 수출하고 있었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범랑철기, 전구 등은 공황기에 부산지역에서 부산제조업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새로운 중화학공업이었다(박영구, 2005a, pp.321-322). 수출도기도 새로운 도약을 이루었다.

1933년에는 주요한 두 기업이 창업했다. 첫 번째 기업은 「魚乙彬製藥株式會社」로 5월에 자본금 150,000원, 불입자본금 37,500원으로 榮町1丁目에서 창업했고, 이어 7월에는 마닐라로프제조업체인 「朝鮮製網株式會社」가 자본금 250,000원, 불입자본금 250,000원으로 瀛仙町에서 창업했다. 이 회사는 大阪 「前岡製網株式會社」의 자매회사로 1929년에 영도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당시 직공수는 200명에 달했다(김의환, 1972, p. 1025). 그런데 이 회사가 설립된 瀛仙町은 이미 「株式會社釜山鐵工所」(1928),¹⁶⁾ 「株式會社田中造船鐵工所」(1931), 「日本硬質陶器株式會社」(1920), 그리고 주식회사로 발전하는 「山峰코크스(コークス)合資會社」(자본금 24,000원, 1922)(『朝鮮銀行會社要錄』, 1923) 등 제조업 중에서도 중화학공업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던 지역이었다. 한편 富平町은 일찍부터

15) 신문은 "미국상품에 대항하여 조선산 정어리통조림 남양수출-三井, 東洋製罐협정성립되어 수산수출기대된다"고 적고 있다.

16) 1934년 「釜山鐵工造船所」로 회사이름이 변경된다. 釜山府, 『釜山の産業』, 1935.

「丸金酒造株式會社」, 「辻酒造株式會社」, 「株式會社川井印刷所」(1921) 등으로 경공업이 발달하였고 南濱町은 수산물통조림제조기업인 「丸平토마토사단(トマトサーヂン)」(1932), 「江原食品株式會社」(1931) 등이 들어와 새로운 식품제조업거리로 발전하고 있었다. 공황기 기업들의 정보, 원료, 유통 등 생산비 절감노력은 동종업종의 집적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공황기 양극화, 해외신시장개척, 신상품개발, 동종업종의 집적 등 주요한 특징이 나타나면서 이루어진 자본금 10만 원 이상의 제조업 회사를 1934년 부산의 제조업회사 중 골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1934년 주요 제조업 회사(자본금 10만 원 이상)

		창립	업종	자본금	불입액	주소	
1 9 3 4	주 식 회 사	丸金酒造	1908.12	酒醜類양조업	100,000	56,500	富平町1-10
		辻酒造	1911.6	주류제조판매	100,000	58,000	부평정2-68
		朝鮮紡織	1917.11	면포면사제조등	5,000,000	5,000,000	凡一町700
		(주)田中조선철공소	1931.7	조선업	100,000	75,000	瀛仙町1989
		大鮮釀造	1930.7	주류양조업	1,000,000	600,000	凡一町401-1
		立石商店	1931.12	유류, 製綿 등	1,000,000	900,000	本町1-25
		丸大고무(ゴム)	1931.4	고무화, 제품제조	300,000	300,000	凡一町942
		魚乙彬製藥	1933.5	제약업	150,000	150,000	榮町1-23
		丸平토마토사단(ト マトサーヂン)	1932.5	수산물통조림제조	100,000	25,000	南濱町1-41
		東洋法郎	1934.12	법랑철기제조	120,000	90,000	瀛仙町258
		三和護謄	1934.9	고무제품제조	855,000	855,000	凡一町1290
		(주)에비스(エビス) 藥舖	1925.4	賣藥藥種제조판매	100,000	25,000	大倉町4-28
		日本硬質陶器	1920.6	도기제조판매	3,750,000	937,500	瀛仙町1821
		朝鮮製網	1933.7	製網	250,000	250,000	瀛仙町1887
釜山鐵器에나멜(エ ナメル)	1934.10	철기에나멜품제조	100,000	25,000	瀛仙町273		

자료: 釜山府, 『釜山の産業』, 1935.

주: 밑줄 부분은 변경 혹은 신규사항임.

1934년의 제조업기업으로 자본금 10만 원 이상의 주요 기업을 조사해보면 일부 기존기업의 자본금 확장과 업종특화 그리고 신규 중화학공업 기업의 창업분이 눈에 띈다. 「株式會社立石商店」은 공칭자본금을 500,000원에서 1,000,000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900,000원을 불입하였으며 「魚乙彬製藥」은 1933년 150,000원을 자본금으로 불입하였으며 1934년 150,000원을 추가 불입하였다.

彬製藥株式會社」는 공칭자본금 150,000원으로 자본금불입을 완료하였다. 「株式會社에비스(エビス)藥舖」는 「朝鮮製藥株式會社」가 사명을 변경한 것으로 공칭자본금, 불입자본금, 설립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회사명을 바꾼 것에는 제조업을 약화시키고 판매업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34년 9월에는 「三和護謨株式會社」가 창립되었고 10월에는 「釜山鐵器에나멜(エナメル)株式會社」, 그리고 12월에는 「東洋瑠璃株式會社」가 창립되었다. 「三和護謨株式會社」는 공칭자본금, 불입자본금이 855,000원에 달하는 대규모 회사였다. 1934년의 창립회사들은 공황을 이기기 위한, 확대되는 성장업종을 선택하고자 하는 기업들이었다. 공칭자본금은 50,000원으로 작았지만 1928년 영선정에서 설립되어 1934년부터 회사명을 변경하면서 내연기관을 제조한 「株式會社釜山鐵工造船所」 역시 동일하였다. 「釜山鐵器에나멜(エナメル)株式會社」, 「東洋瑠璃株式會社」 등의 지속적인 범람철기회사들의 창립과 「丸平토마토사단(トマトサーチン)株式會社」의 확장 등 수출 제조업회사들의 사례는 해외시장으로의 사업이 1930년대 중일전쟁 전까지 확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전쟁 이전 1930년대 공황을 통과하면서 부산의 제조업 회사에 나타난 특징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30년대 부산의 제조업회사는 공황을 통과하면서 대규모의 제조업기업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진입,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공황기 생존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규모가 커질수록 주식회사가 자본모집, 규모의 경제 등 경쟁상의 효율성을 더 높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33년부터는 자본금 10만 원 이상 제조업기업은 모두 주식회사인 주식회사제조업시대가 열렸고 제조업회사는 소규모의 합명, 합자회사와 대규모의 주식회사로 양분되었다.

둘째, 부산의 제조업기업은 공황기를 통과하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응과 전환을 모색했다. 공황은 초기에 기업들에게 보다 수익성이 남는 부문으로 이동, 특화하고자 하는 전환을 모색하게 하였지만, 차차 공황기를 이용한 한쪽에서의 규모집중과 한쪽에서의 몰락이라는 양극화가 중화학공업 전분야에서 진행되었다. 공황은 위기였지만 한편으로는 창업과 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회였으며 실제로 공황기 저렴한 창업자이득 혹은 창업비용을 이용하고자하는 움직임으로 제조업회사 창업붐은 1930년대 중

반 확대되었고 규모확대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두 가지 특징은 불황기 나타나는 세계사적인 일반성이 부산제조업에도 관철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로 공황기를 통과하면서 부산의 제조업기업은 공황기 국내수요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신상품과 해외시장지향 생산에 나서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장의 추구하고 함께 범랑철기와 전구, 신도기 등 중화학공업의 신제품 생산이 확대되었다.

넷째, 기업들은 공황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 원료, 유통 등 생산비 절감노력으로 동종업종의 집적지를 만들어내었다. 영선정은 집약된 중화학공업단지로 발전해 나갔다.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정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가내공업 성장을 이루어왔던 한국인 제조업기업의 창업도 이루어졌다.

결국 1930년대 부산제조업계에는 공황이라는 위기가 나타났지만 오히려 공황을 통과하면서 부산제조업이 그 대응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룬 시기였다. 공황이라는 외부적 충격으로 맞은 1930년대 부산의 제조업기업들은 공황이라는 위기 속에서 발전경로를 찾아내고 있었고 이는 공황으로부터 회복기에 들어가는 1935년 이후에도 연결되어 내재적인 확장구조를 만들어나가고 있었다. 이는 분명히 일반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부산지역의 특수한 움직임이었고 따라서 이는 1937년 이후 전쟁기로 들어서면서 부산의 차별적인 발전과정을 만들어냈으며 해방 이후까지 영향을 미쳤다.¹⁷⁾

신제품과 신시장의 추구 그리고 공황을 통과하면서 나타난 저렴한 창업자이득 혹은 창업비용을 이용하고자 1934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제조업회사 창업붐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어져 1935년에는 우선 자본금이 10만 원이 넘는 주요 제조업회사로만도 「株式會社清水糖精米所」, 「朝鮮鑄物工業株式會社」, 「釜山製氷冷蔵株式會社」, 「株式會社倉橋商店」, 「株式會社若狹材木店」, 「釜山製氷冷蔵株式會社」, 「株式會社三友商會」, 「朝鮮玳瑁株式會社」 등 다수 주요회사가 창립되었다. 「株式會社倉橋商店」(1935.1) 과 「(주)若狹材木店」(1935.3)은 釜山府의 1935년 조사에서는 제조가 업종에 포함되었으나 1937년 말 조사에서는 제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釜山の産業』, 1937, 1938) 전쟁과 함께 업종이 상업으로 특화되면서 변화한 것이다. 또한 1935년에는 소규모이지만 자동차차체제작사인 「株式

1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영구(2008) 참조.

會社出口鐵工所)(水晶町30, 자본금 50,000원, 1935년 8월)가¹⁸⁾ 1914년 창립한 기존 철공소를 주식회사로 재창립하였으며(『朝鮮工場名簿』, 1932), 「朝鮮電氣鑄鋼株式會社」(瀛仙町, 자본금 50,000원, 1935년 1월), 「牧島酒造株式會社」(영선정, 자본금 50,000원, 1935년 6월)가 창립되었다. 이해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丸和工業株式會社」도 1935년 9월에 堂甘里에서 창립되었다. 특히 해외수출분을 타고 1934년 10월 「釜山鐵器에나멜(エナメル)株式會社」와 12월 「東洋瑠璃株式會社」 창립에 이어 1935년 11월 「朝鮮瑠璃株式會社」가 창립되어 범랑철기생산분이 일어났다. 동시에 이들 범랑철기회사들과 신설 「朝鮮電氣鑄鋼株式會社」 모두 영선정에 집결되어 점점 더 영선정은 집약된 중화학공업단지화가 진행되었다. 범랑철기의 수출분이 일어나면서 작업량이 많아져 1936년 10월 8일에는 「東洋瑠璃株式會社」 職工 3백여명이 勞動時間短縮과 賃金引上을 요구하고 파업을 단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큰 방향을 일으킬 정도였다(『朝鮮日報』, 1936. 10. 9; <동아일보>, 1936. 10. 9; 『朝鮮新聞』, 1936. 10. 11). 1934년 하반기 이래 부산의 창업붐으로 부산공업이 왕성해지자 신문도 “長足發展의 釜山工業, 工場五百五十餘 그 중 방직공업이 수위를 점령, 從業員 八千三百名”이라는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부산의 공업을 업종별로 공장수, 종사자수와 함께 소개하였다(『동아일보』, 1935. 4. 17).¹⁹⁾

1936년 자본금 10만 원 이상으로 창업한 제조업회사로는 「朝鮮穀産工業株式會社」, 「大立護謨株式會社」, 「朝日放熱器株式會社」 등이 있다. 여기에서 앞의 두 회사는 金日守, 金明五가 창업한 한국인제조업회사로 공칭자본금 규모는 둘 다 100,000원이어서 크지 않았다. 그런데 업종이 완전히 다름에도 같은 해 창립한 두 회사가 釜田里에 같이 자리를 잡은 것은 위험 회피적인 한국인회사의 군집성을 보여준다. 1937년 25개 제조업 대회사 중 부전리에 자리잡은 제조업기업은 3개뿐이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부

18) 釜山府, 『釜山の産業』, 1938에서는 창립일이 1934년 9월로 나오지만 이후 1942년 판에서 정정되고 있고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37, 1939에서도 일관되게 1935년 8월로 나와 있다.

19) 이 기사에 의하면 부산은 당시 557개 공장, 8,378명의 종업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근거를 알 수 없지만 공장수는 과대평가되고 종사자수는 과소평가되어 있다. 저자(박영구, 2005a)가 확인한 것에 따르면 1934년 말 5인 이상 공장수는 347개에 종사자수는 10,199명이었고 1935년은 공장 338개에 종사자수 12,364명이었다.

전리가 기업입지로서 우수한 유인요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쨌든 1936년 한국인 제조업기업 2개가 창업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다양한 중화학공업제품이 새로이 부산공업의 신제품으로 등장하고 해외시장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내에서 높은 가내공업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박영구, 2005a, pp.319-323).

【표 9】 1935년 주요 제조업 회사(자본금 10만 원 이상)

		창립	업종	자본금	불입액	주소
1 9 3 5 주 식 회 사	丸金酒造	1908.12	酒酢類양조업	100,000	56,500	富平町1-10
	辻酒造	1911.6	주류제조판매	100,000	58,000	부평정2-68
	朝鮮紡織	1917.11	면포면사제조등	5,000,000	5,000,000	凡一町700
	日本硬質陶器	1920.6	도기제조판매	3,750,000	937,500	瀛仙町
	丸平水産工業	1932.5	수산물통조림제조	100,000	50,000	南濱町1
	(주)田中조선철공소	1931.7	조선업	100,000	75,000	瀛仙町
	大鮮釀造	1930.7	주류양조업	1,000,000	600,000	凡一町
	丸大 고무(ゴム)	1931.4	고무화, 제품제조	300,000	300,000	凡一町942
	立石商店	1931.12	유류, 製綿 등	1,000,000	900,000	本町1-25
	魚乙彬製藥	1933.5	제약업	150,000	150,000	榮町1
	朝鮮製網	1933.7	제망업	250,000	250,000	瀛仙町
	(주)에비스(エビス)藥舖	1925.4	賣藥藥種제조판매	100,000	25,000	大倉町4-28
	(주)清水糖精米所	1935.3	榻榻精米業	500,000	300,000	凡一町
	朝鮮鑄物工業	1935.3	주물공업	100,000	25,000	南濱町1
	(주)倉橋商店	1935.1	건구, 표구재료제조	250,000	200,000	大廳町
	三和護謨	1934.9	고무제품제조	855,000	855,000	凡一町
	釜山鐵器에나멜(エナメル)	1934.10	법랑철기제조	100,000	25,000	瀛仙町
	東洋珐瑯	1934.12	법랑철기제조	120,000	90,000	瀛仙町
	(주)若狭材木店	1935.4	제재, 목재판매	200,000	100,000	榮町3
	釜山製氷冷蔵	1935.9	제빙, 냉장냉동	200,000	200,000	昭和通2
(주)三友商會	1935.10	양가구, 장식제조	100,000	40,000	本町3	
朝鮮珐瑯	1935.11	법랑철기제조	100,000	100,000	瀛仙町	

자료: 釜山府, 『釜山の産業』, 1937. 釜山府, 『釜山府勢要覽』, 1936.

주: 밑 줄 부분은 변경 혹은 신규사항임.

고무공업은 앞서 지적했듯이 부산이 기후입지적으로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작업환경과 작업의 곤란성으로 한국인들이 매우 강한 공업이었는데 한국인회사인 「大立護謨株式會社」의 진출도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朝日放熱器株式會社」, 「釜山爐工業株式會社」, 그리고 船釘, 볼트 등 중공업제품을 생산하던 「株式會社釜山製燈所」 등 중공업업체들의 1936년 영선정 집결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런 경향은 전시하에서도 계속 유도되었다.

193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제조업회사 창업붐과 해외수출붐을 타면서 부산의 제조업이 급속히 발달하자 공장부지 부족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에 부산부는 제조업자들에게 저렴한 지가의 공단부지를 제공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부산부는 1930년대 중반 府域 확장에 나서 西面 일대 및 영도(絶影島, 牧島) 일원을 확장 편입하였다. 부산진 매립으로 자성리 주변, 우암리, 赤崎가 매립되자 이를 부산부가 이용하기 위해 우암리가 속해있었던 東萊郡 西面을 1936년 부산으로 편입하였다. 영도는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곳으로 봉래동 방향에는 공장이 많았다(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부산항변천사』, 2003, p.171). 부산의 산업발전은 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대제공하는 역사와 맥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붕괴된 것은 1960년대 말부터였고 1980년 「인구과밀지역해소와 집중완화를 위한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부산시행은 기업입지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박영구, 2005b, p.349-350).

VI. 요약과 시사점

20세기 전반기 나타난 외부충격과 이에 대한 지역 제조업회사의 변화와 반응은 기존의 일반인식과 시기구분이 지역경제에 맞지 않음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도 세계적인 일반성과 함께 지역 특수성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따라서 지역문제의 역사적 접근을 위해서는 지역별 연구가 좀더 심화되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일제하 부산지역의 제조업기업에게는 1937년 이후 본격화된 전시경제기를 제외하면 세 번의 외부적 충격이 있었다. 그 첫 번째는 식민지화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본자본의 진입이었는데 이들은 일부 기호식품을 제외하고 식민지 내부시장을 형성하는 데 실패하였고 장기적 제조이익보다 단기적 유통이익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기업의 영세성에 근본원인

이 있었다. 두 번째 외부충격은 1916년부터 시차를 두고 확대된 전쟁특수와 이에 따른 회사령 완화였다. 이 충격에서 부산지역에는 제조업기업의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거대기업의 진입이라는 질적 변화도 나타났다. 이는 1910년대 전반부까지와 달리 지역 내수시장 확대가 확인되는 가운데 대규모 기업이 진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1920년대 종전 이후 엔블록과 전국에서 당연히 존재했던 수요격감과 구조조정이 부산의 제조업회사에게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의 제조업 1사당 불입자본금 규모도 1916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922년까지 계속 상승하였다. 이 시기 퇴출기업은 전시기 특수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서, 경기변동이 거의 정점을 통과하면서 설립되어 합리적 기대형성에 실패한 회사들이었는데 이는 지역기업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공황 이전 1920년대 구조적으로 뚜렷한 변화나 특징을 보여주지 않고 있던 부산제조업회사에 변화를 촉진시킨 것은 1910년대 후반에도 그러했듯이 공황이라는 세 번째 외부충격이었다. 공황이라는 충격 속에서 부산의 지역제조업회사에는 세 가지 변화가 진행되었다. 첫째, 1930년대 부산의 제조업회사는 공황을 통과하면서 대규모의 주식회사 형태로 진입, 발전하게 되었다. 1933년부터는 자본금 10만 원 이상 제조업기업은 모두 주식회사인 주식회사제조업시대가 열렸고 제조업회사는 소규모의 합명, 합자회사와 대규모의 주식회사로 양분되었다. 이는 대불황기 유럽에서 관찰된 일반성이 부산제조업에서 그대로 확인됨을 보여준다. 둘째, 공황은 위기였지만 한편으로는 창업과 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회였으며 실제로 공황기 저렴한 창업자이득 혹은 창업비용을 이용하고자하는 움직임으로 제조업회사 창업붐은 1930년대 중반 확대되었고 기업규모확대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한쪽에서의 규모집중과 한쪽에서의 몰락이라는 양극화가 중화학공업 전 분야에서 전형적인 공황의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이 역시 세계사적인 일반성이 부산지역에도 관철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부산의 제조업기업은 공황기를 통과하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응과 전환을 모색했다. 제조업기업은 공황기 국내수요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신상품과 해외시장지향 생산에 나서기 시작했고 또 기업들의 정보, 원료, 유통 등 생산비 절감노력으로 영선정 중화학공업단지 등 동종업종의 집적지를 만들어내었다.

1936년 부산의 輸出 대상국가는 81개국에서 97개국으로 급등했고 이러한 새로운 시장의 추구하고 함께 주요 수출품인 범랑철기, 전구, 신도기 등이 공황기 부산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되었다. 공황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진 창립회사들은 공황을 이기기 위한, 확대되는 성장업종을 선택하고자 하는 기업들이었다.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정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가내공업 성장을 이루어왔던 한국인 제조업기업의 창업도 이루어졌다. 결국 공황이라는 외부적 충격으로 맞은 1930년대 부산의 제조업기업들은 공황이라는 위기 속에서 발전경로를 찾아내고 있었고 이는 공황으로부터 회복기에 들어가는 1935년 이후에도 연결되어 적어도 전쟁 이전까지 내재적인 확장 구조를 만들어나가고 있었다.

부산지역의 외부충격과 부산제조업기업의 변화, 대응에 대한 본 고의 검토는 외부충격이 미치는 영향은 지역사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됨을 보여준다. 나아가 외부적 충격의 정도와 상관없이 비합리적 선택을 한 주체는 배제되지만 동시에 외부충격은 언제나 새로운 발전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당연히 오늘날 외부변수의 영향력이 커지는 지역경제의 전략에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한편 부산의 발전역사는 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대제공하는 역사였다는 점도 공동화현상으로 시름하는 지역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 참고문헌 ◆

- 慶尙南道 (1923-1925, 1929, 1932), 『慶尙南道統計年報』.
 국제신문사 (1990, 11, 17), "부산의 상맥," <국제신문>.
 金慶南 (1999), "한말, 일제하 부산지역의 도시형성과 공업구조의 특징," 『지역과 역사』, 제5호, 부경역사연구소, pp. 223-291.
 김낙년 (2003), 『일제하 한국경제』, 해남.
 金義煥 (1992), "부산근대 공업발달사," 『한국근대사 연구논집』, 성진문화사, 1001-1068.
 김인호 (1998), 『태평양전쟁기 조선공업연구』, 신서원.
 金智泰 (1976), 『나의 회고록』, 한국능률협회.
 南朝鮮中央經濟委員會 (1948), 『南朝鮮産業勞務力及貨金調査』, 庶務處統計署.

- 大韓年鑑社 (1952), 『大韓年鑑 4286年版』.
- 동아일보사 (1935. 1. 6-1940. 3. 30), 〈동아일보〉.
- 매일신보사 (1940. 10. 20-1945. 4. 19), 〈每日申報〉.
- 박영구 (2005a), 『근대부산의 제조업, 1900-1944』, 부산발전연구원.
- 박영구 (2005b), 『현대부산의 제조업, 1945-2000』, 부산발전연구원.
- 박영구 (2008), "전시기 부산제조업회사의 성격변화, 1937-1945," 『지역사회 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지역사회학회, pp. 127-144.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3), 『부산항변천사』.
- 釜山府 (年度不明), 『大正13年 釜山府勢要覽』.
- 釜山府 (1921-1924, 1927-1934, 1936), 『釜山府勢要覽』.
- 釜山府 (年度不明), 『釜山府勢一斑』.
- 釜山府 (1932, 1934), 『釜山商工案内』.
- 釜山府 (1935, 1936-1938, 1940, 1942), 『釜山の産業』.
- 釜山仕入案内社 (1915), 『釜山仕入案内』.
- 釜山商工會議所 (1934, 1935), 『釜山商工案内』.
- 釜山商工會議所 (1932), 『釜山の商工案内』.
- 釜山商工會議所 (1933-1935, 1938), 『統計年報』.
- 釜山商工會議所 (1982), 『釜山商議史』.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원 (1989), 『부산경제사』.
- 釜山稅關 (1937, 1939, 1940), 『釜山港貿易概覽』.
- 부산일보사 (1917-1941. 3. 30), 〈부산일보〉.
-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 (1990), 『釜山市史』, 제2권.
- 森田福太郎 (1912), 『釜山要覽』, 釜山商業會議所.
- 相澤仁助編 (1905a), 『釜山港勢一斑』, 日韓昌文社.
- 相澤仁助 (1905b), 『韓國二大港實勢』, 日韓昌文社.
- 성병두 (2004. 2. 9-2004. 6. 28), '부산경제야사,' 〈부산일보〉.
- 장선화 (2000), "1920-30년대 부산의 공업발전과 도시구조의 변화," 『지역과 역사』, 제6호, 부경역사연구소, pp. 137-177.
- 정태헌 (1996),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 조선공로자명감간행회 (1935), 『朝鮮功勞者銘鑑』, 民衆時論社.
- 朝鮮物産共進會釜山府協贊會 (1915), 『釜山港勢一斑』.
- 조선일보사 (1935. 12. 13-1942. 12. 28), 〈조선일보〉.
- 朝鮮銀行調査部 (1949), 『經濟年鑑』.
- 朝鮮總督府 (1911), 『第四次朝鮮總督府統計年報』.

- 朝鮮總督府 (1930-1938), 『調査月報』.
- 朝鮮總督府 (1912-1917, 1922, 1928-1932, 1940-1944), 『朝鮮總督府統計年報』.
- 朝鮮總督府 (1912. 10. 24-1943. 7. 5), 〈朝鮮總督府官報〉.
- 朝鮮總督府 (1912), 『大正元年 朝鮮總督府統計要覽』.
-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 (1938. 10. 15), 〈秘, 經濟統制下에 있어서의 商工業者의 動靜〉, 〈治安狀況〉 昭和 13年 44報-47報 要約, 발송일 1938년 10월 15일.
- 朝鮮總督府殖産局 (1932, 1936, 1937, 1941), 『朝鮮工場名簿』.
- 中村資良編 (1921, 1923, 1927, 1933, 1939, 1942),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 統監官房文書課 (1907), 『第一次統監府統計年報』.
- 統監府 (1909, 1910), 『統監府 統計年報』.
- 허수열 (2000), 『개발없는 개발-일제하 조선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 은행나무.

Exogenous Shocks and Regional Economy: Busan Manufacturing Companies, 1908-1936

Young Goo Park*

Abstract

Exogenous shocks and the response of Busan manufacturing companies to those during 1908-1936 show the three following: First, existing recognition and periodical division are not consistent with those in regional economy. Second, also even in region, there existed specialty as well as the worldwide generality. Third, therefore historical research into regional facts is necessary and should be done separately more and deeper.

This research in exogenous shocks and the response of Busan manufacturing companies shows the effect of exogenous shock is decided endogenously by regional society. Furthermore also it shows that irrespective of the degree of an exogenous shock an economic agent with irrational choices is excluded and at the same time an exogenous shock always gives an new development opportunity to economic agents. This historical finding gives the very important implications to an regional economy on which nowadays exogenous variables make more and more effects.

KRF Classification: B030106

Key Words: exogenous shock, regional economy, Busan manufacturing companies,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Great Depression

* Pusan University of Foreign Universities, Professor